

速記界

2009 - 45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速記界

Contents

>>>>> >>> >>> >

권두언

4 |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관의 역할을 다해 나가기를 / 회장 고흥길

인사말

6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은 지혜를 가집시다. / 이사장 이경식

속기창안 100주년 특집

8 | 우리말 속기법의 역사를 찾아서 / 박정현

13 | 우리말 속기 태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할 때 - / 손석련

19 | 동방식속기 창안자 이동근 선생을 찾아서 / 유순태

25 | 속기는 시간을 타고 / 권초롱

인터스테노

36 | 2008 IPRS 참가 보고 / 국제부

39 | 2008 IPRS 회의록 / 국제부

기자 스케치

53 | 역사기록의 보석함, 나라기록관! / 김나영 기자

61 | 담양군의회를 가다. / 제신지 기자

세미나

67 | 제16회 속기학술세미나에 대한 소회 / 오근순

▶ 표지설명



한국 속기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 어느덧 100살이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견디고 추운 겨울을 지난 나무가 나뭇잎을 그리며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듯 우리 속기계도 역사를 써내려가며 희망의 새로운 싹을 틔우고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2009 제45호

제언

72 | 속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 박장원

새내기 속기사

- 81 | Impossible is Nothing!! / 류태문
- 87 | 나는 이제 1등 신랑감이다! / 주호근
- 92 | 새, 둥지 옮기다. / 홍미지

회원동산

- 98 | 금강화길을 추억하며 / 김란희
- 102 | 사우샘프턴에서 / 김정아
- 109 | 벨리댄스-내 마음에 날개를 달다 / 최혜련
- 115 | 사랑하는 내 딸 진민이에게 / 정숙
- 119 | 국회사무처 견학기 / 다음카페 속기마당
- 124 | 7일간의 프랑스 여행기 / 황유진
- 133 |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 한재석

협회동정

- 137 | 제42회 정기총회
- 139 | 협회 임원 및 기구표
- 140 | 2009 INTERSTENO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최종 선발전

편집후기

www.steno.or.kr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관의 역할을 다해 나가기를



친애하는 속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고흥길입니다.

올해는 우리말보다는 한자를 우월한 문자라고 여
기던 시대에 우리말을 좀 더 정확하고 빨리 전달하고자
‘속기문자’를 창안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여일이라는 분이
창안한 그 문자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어떤 연고로
하와이까지 가서 거기에서 우리말을 속기로 남기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새삼 신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인지라 1909년 속기문자가 처음
창안이 되고도 계속 문혀 있다가 일제 치하였던 우리나라에서 속기라
는 것이 태동을 하고 일본어 속기를 하던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한글
속기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1920년대였고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
라에 의회가 생기면서 우리말 속기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기인의 총집결체로서 1955년에 설립된 대한속기협회는 지
난 50여 년 동안 속기문화의 보급과 홍보는 물론 학술적 연구를 꾸준

히 하여 협회의 설립 목적인 기록보국과 공익에 봉사해 왔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선배 속기인들이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속기’라는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고 속기를 한 그루의 튼실한 나무로 성장시켜 놓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속기인의 자세로 지금의 위기와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다음 시대에 올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기인 여러분!

고대 종이의 발명으로 기록이라는 것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 인쇄기술, 녹음, 영상 등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술들로 기록의 수단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록문화의 발전이 쉽 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임과 동시에 기록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기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속기 기술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자기 계발은 물론 변화하는 기록 수단의 변화에 발 빠른 대처를 해 나갈 때만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속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인은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도약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려 역사의 기록자로서 후대에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사관의 역할을 다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지혜를 가집시다.



이 경 식
(대한속기협회 이사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을 맞으며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출발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성하의 계절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변함이 없을 것만 같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틀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해 가고 있고, 지구촌은 한 지붕이라는 실감을 근년 들어 뼈저리게 느끼게 되

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결코 우리만의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피부로 다가오면서 갖게 되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올 초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리라고 생각조차 못 하였지만 그동안 우리 협회를 설립하시고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을 생각하면서 저절로 머리 숙여지는 것은 저 자신의 부족함이 크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시기 시기마다 고비도 많았겠고 변화에 대한 도전도 있었을 터인데 수십년이 넘게 그 파고를 헤치며 이 자리에 건재해 있는 협회가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장단과 회원 여러분을 등에 업고 열과 성을 다해 힘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보건대 올해는 박여일 선생이 하와이에서 ‘조선속기법’을 창안하여 시카고에서 속기학 강의를 하는 한편 미국에서 발간되는 한국신문인 《신한민보》에 발표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야말로 속기계로서는 커다란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해이며 그 의미를 높이 기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숙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시간속기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계속기를 이용한 발전방향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첨단과학에 의한 정보통신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음성인식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 가일층 새로운 도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변화는 지난 시기의 변화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도와 흐름으로 전개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협회의 최대 목표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속기문화를 선도하는 단체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전 속기인의 대동단결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과 같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기록의 전수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대한속기협회의 힘찬 도약을 기약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 속기법의 역사를 찾아서



◎ 박 정 현

이제 필자가 입사한 지도 10년째로 접어들었다. 솔직히 정말 우연한 기회에 속기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속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누가 어떤 계기로 개발을 하게 된 건지 도통 궁금하지도 않다가 이번에 속기 창안 100주년을 계기로 특집 기사 얘기가 나오면서 이리저리 뒤적거리다 보니 속기라는 것이 처음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는지, ‘누가, 왜’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워낙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껴온 터라 10년이나 속기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참인데도 여태 관심이



없었다는 게 나도 참 너무했다는 생각도 든다.

속기법이 창안된 것은 그 옛날 로마시대 때였다고 한다. 로마시대 때는 웅변술이 발달하였고 아마도 그 훌륭한 웅변가들의 주옥 같은 수사들을 후세를 위해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다 수단이 생기는 법…… 속기법의 효시는 B.C. 63년 당시 정치가이자 유명한 웅변가였던 마커스 타리아스 시세로(Marcus Tullius Cicero)가 원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구사일생으로 죄를 면하여 각 지방을 유세하고 다닐 때 그의 제자였던 타이로(Tiro)가 로마자의 두미자(頭眉字: 머리글자와 끝의 글자)를 적당히 약기하는 방법으로 시세로의 연설을 받아적어 공표하였는데 타이로의 이 약기법이 속기법의 효시가 되었다 한다. 그 이후에도 타이로의 약기법이 계속 보급이 되다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좀더 익히기 쉽고 빨리 쓰기 쉬운 방법이 계속 개발되어 온 것 같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이라는 의문이 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뿌리가 깊었고 그에 대한 사대주의가 팽배해 있던 터라 우리글을 쓰는 것조차도 워낙 늦어서 속기법의 창안이 늦었다고 한다. 게다가 1910년 이후 일제 치하로 들어갔으니 오죽했을까 싶기도 하다.

그 이유에서인지 처음 우리말 속기법이 발표된 것도 한국을 떠나 미국 하와이로 이민간 경상도 출신인 이민 2세 박여일이라는 분이 1909년 ‘조선 속기법’을 창안하여 시카고에서 속기학 강의를 하는 한편 미국에서 발간되는 한국 신문인 「신한민보」에 발표하면서부터라 한다.

그리고 박여일이 조선속기법을 발표한 후 14년이 지난 1923년에 상해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김두봉이 망명지인 상해에서 출간한 문법서 「김



도 조선말본」 제2부록에 ‘날적말 적기 약기법’¹⁾을 실으면서 또 다른 속기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발표되는 우리말 속기법은 조선일보 방태환의 권유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다쿠사리식을 연구한 방익환·이원선 등이 공동으로 「조선어속기술」을 발표한 1925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방익환·이원선 등이 「조선어속기술」을 발표하고 2년 후인 1927년에 김한터가 「월간 신조선」지 창간호에 ‘우리말 속기법’을, 엄정우가 「월간 동광」지 7·8월호에 ‘조선속기술’을 각각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속기법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김한터와 엄정우의 속기법 발표 후 7년째인 1934년 2월에는 「동래고보 교우회지」에 당시 동래고보 학생이었던 김용호가 ‘조선어속기법’을 게재하였는데 이 속기법은 가로쓰기가 아닌 세로쓰기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상의 속기법은 모두가 속기의 기본문자에 불과하였고 제대로 체제를 갖추어 발표된 속기법은 1935년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29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조선어속기술강해’라는 주제로 연재된 강준원의 ‘조선어속기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일제치하에서는 속기술이 발표는 되었지만 단지 시도 자체로만 그쳤을 뿐이고 우리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실용화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1) ‘날적말 적기’란 날개, 즉 새가 나는 듯 빠르게 적는다는 의미이며, ‘약기법’은 축소된 문자로 속기로 쓰는 방법을 뜻한다.



속기술의 발달은 의회정치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말 속기가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해방 이후부터는 우리말 속기가 발표·보급되기 시작했다.

해방되면서 해방된 후 개원될 국회의 의정사를 누가 속기할 것인가가 속기인들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는 일본어 속기가 가능한 사람이 십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니 그 상황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어 속기가 가능했던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일본어 속기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현재 우리말 속기의 진정한 태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1946년 6월 20일 장기태가 일파식을 서울신문과 그 밖의 신문에 발표함과 동시에 ‘일파식속기학개론’을 출간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박송이 주간으로 있는 주간 「학생신문」에 ‘조선어속기자연맹’ 결성 광고가 게재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6일간 「학생신문」에 ‘조선어속기에 관한 연구’라 하여 박송의 ‘조선식(후에 한국식으로 개칭)’이 소개되었으며, 12월 25일에는 조선교육연구회 간행으로 박종원의 「조선속기」가 출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47년 7월 박인태가 ‘중앙식’을, 1948년 2월 이동근이 ‘해방속기(이후에 동방식으로 개칭)’를, 같은 해 8월 김천한이 ‘고려식 속기법’을 각각 발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발표된 법식들은 그 창안자들이 미 군정의 입법자문기관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필요로 하는 속기사를 당장 배출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속기법을 기초로 하여 급조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속기법 자체에도 결함도 많았다.



김천한의 고려식 속기법이 발표된 후 얼마간 새로운 속기법 발표가 뜸하다가 1950년 2월 3일에 김세종이 '세종속기법'을 발표하고 주로 호남지방에서 속기사 양성에 힘썼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저술은 없었고 1956년 들어 남상천의 '남천식'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해방 후 이처럼 여러 방식의 속기법이 창안·발표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1968년 2월 3일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속기사양성소가 다시 개설되고 동년 5월 20일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 설치와 때 맞추어 연구 작업에 들어간 결과 1969년 1월 10일에 의회식이 창안되었다고 한다.

지금 서술한 사실들은 '한국속기50년사'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힌다. 필자는 컴퓨터 속기사여서 그 속기법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모른다.

현재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에 종사하는 수필속기사는 30여 명 남짓인데, 앞서도 나온 말이지만 의회의 발달이 속기의 발달과 비례한다고 할 정도로 그 역사를 같이해 왔는데 컴퓨터 속기가 주가 되어 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지만 현재까지 있는 수필속기에 관한 자료의 보존 내지는 그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들었다.



우리말 속기 태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할 때 -

◎ 손 석 련 / 대한속기협회 감사



2009년 올해는 박여일 선생이 하와이에서 『조선속기법』을 창안하여 재미동포들이 창간한 「신한민보」에 발표한 1909년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 속기 태동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말 속기의 창안에 몸 바치고 속기사 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창안자와 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한국 속기계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기록보국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특히 우리말속기는 일제시대 우리말과 글을 없애고 민족정기를 말살시켜 영구히 일



본 식민지배를 꿈꾸던 시절에 독립 광복된 내 나라에서 우리말을 우리글로 직접 기록·보존하겠다는 독립정신의 발현으로 시작되었다.

수필속기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속기술이 타자속기를 거쳐 디지털기술 시대의 도래로 컴퓨터가 기반이 된 속기술의 단계에 이르러 있다.

속기의 수요처도 다양해졌다.

그동안 속기사의 수요가 국회 위주에서 1990년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속기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법원에서도 속기사를 채용하여 재판기록을 담당해 왔는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2명의 속기사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법원에서 약 650여 명으로 늘어나 어느새 지방의회보다도 더 많은 속기사가 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속기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대학에서 청각장애 학생에게 자막 서비스를 담당하는 교육속기 등 장애인을 위한 속기 분야가 개척이 되어 속기사가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하는 것도 매우 보람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손에 꼽힐 정도밖에 없던 속기사무실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수백 개로 늘어나 많은 속기사들이 회의록이나 녹음속기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검찰청에서도 속기사를 채용하기 시작하여 또 한 분야가 개척이 되었다.

이 외에도 속기가 필요한 분야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개척할 분야는 많으리라 생각한다.



속기 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앞으로 속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갈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속기 분야가 실시간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전망은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속기술은 녹음장치의 도움이 없이도 속기술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시 이를 행할 수 있는가로 속기술과 속기술이 아닌 것의 경계가 지어진다. 물론 이미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이를 속기술을 이용하여 가장 신속 정확하게 문자화할 수 있는 것이다. 녹음장치와 같은 이기를 속기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모든 말들을 완벽하게 다 알아들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속기술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현존하는 많은 수단 중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모두 정확하게 받아써서 문자화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는 점이다. 우리말 속기가 100년이 되었지만 속기의 기원은 기원전 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속기를 하는 사람은 말하는 즉시 빠짐없이 모두 정확히 기록하고 그것을 일반문자로 고쳐 제공하는 것이고, 속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즉시 받아보기를 원하였지만 컴퓨터라는 이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꿈과 같은 것이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말을 한글로 그대로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기록해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문명의 발달이 그러하듯이 속



기술도 시대의 발전에 발맞추어 실시간 기록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는 속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실시간속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실시간 속기 시대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방송과 각종 행사 및 세미나 등의 실시간 자막제공 분야가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속기방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대상황에 맞는 발전적 방향으로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대책이 절실해진다고 할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예를 보면 약 10여 년 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전국에 속기학원이 약간이나마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문을 닫고 속기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극소수에 불과해 1년에 전국적으로 속기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본은 속기를 배우는 사람이 적어 속기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지 우리가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속기를 배우는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일본의 속기계는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속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자체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08년 발표된 『미국직업전망서』에서 속기직업의 전망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용전망은 밝을 것이다. 특히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취업하기가 좋을 것이다. 고용시장 전망이 매우 밝은 것은 이 직업으로 유입되는 사람은 매우 적고 속기사가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라는 매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십수년 전 미국문화원에서 입수한 『미국직업백서』에서 15만 9000여 사업장에서 속기사가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읽고 무척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두 나라가 상황이 서로 다른 이유는, 그 나라에 속기사가 꾸준히 배출되어 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지 않나 생각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속기계가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속기사 지망생이 아무도 없다면 현 속기계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속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한국 속기계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한국 속기가 100년 이상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중간 허리를 튼튼하게 다지는 데 모두 동참하여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 단단하게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의 속기계가 앞으로 100년을 더 생존하기 위해서는 첫째, 많은 속기사들이 일할 수 있는 장의 확보 즉 속기시장의 확대 및 다양화에 힘써야 하고 둘째, 좀 더 편리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쉬운 속기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며 셋째, 그에 못지않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에 힘써야



하고, 마지막으로 많은 속기 지망생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 조성 및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속기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속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이 우선이며, 또 한국 속기계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에 있어 제일 중요한 변수는 얼마나 많은 열정과 정열을 쏟아 부을 것인가이다.

지금은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동방식속기 창안자 이동근 선생을 찾아서

◎ 유 순 태 / 도움사, 속기문화연구소 대표



그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5월 23일 토요일이었다.

수유리에서 승용차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약 한 시간쯤 달려 파주시 아
동동에 위치한 팜스프링아파트 원장님 댁에 아내와 함께 도착한 시간이 오후 5시 반쯤 되었을까?

동방식 속기인들은 누구나 이동근(李東根) 선생을 ‘원장님’이라 호칭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큼지막한 수박 한 덩이를 사 들고 출입문 벨을 누르자 기다리고 있던 사모님이 반가운 얼굴로 맞아준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좀 있어서
요……”

며칠 전 전화로 방문 약속한 시간보다 무려 한 시간 반이나 늦었기 때문
에 미안하기 그지없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 “아유 뭘요. 노무현 전 대통
령 서거 땀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암튼 어서 들어와요.”라면서 우리를
안심시킨다.

사모님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노무현 전 대
통령 서거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고 계시던 원장님이 “어서들 와!”
하시면서 우리가 자리에 앉기를 권한다.

“원장님, 지난 구정에 별 때보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래? 걷는 것만 불편하지 다른 곳은 건강하다고.”

“그리고 언제 봐도 창밖이 시원합니다.”

“온 가족이 나를 배려한 덕분이야.”

원장님 댁은 주변이 얇은 산에 인접한 공기 좋은 아파트의 1층이다. 43
평형 아파트의 거실 창밖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얇은 나무들로 담장 역할을
하고 있어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느끼는 바깥 정경이 아파트라기보다는 마
치 잘 가꾸진 전원주택을 연상케 한다. 지난 2006년 9월 분당에서 이곳으
로 이사올 때 일반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1층을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일부러 골라 선택하게 된 것은 바깥 출입 시 거동이 불편한 원장님을 생각
해서다. 그래서 원장님은 늘상 방문객으로부터 집안 분위기가 좋다는 소리
를 들을 때마다 ‘온 가족이 나를 배려한 덕분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



올해 91세인 원장님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1991년에 풍을 맞아 왼쪽 수족이 약간 불편하고,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일 뿐 나머지 건강 상태는 91세라는 연세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거기다 이웃 아파트에 살고 있는 셋째 아들 내외가 매일 찾아오다시피 하면서 살림을 도와 주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이란 거의 없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 전만 해도 스틱을 짚고 아파트 주위를 자주 산책하시곤 했는데 요즘엔 전동휠체어만 타고 다니시려고 해서 걱정이예요.”라고 옆자리에서 사모님이 한마디 거든다. 가만히 있다간 더 많은 흉이 나오리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원장님이 사모님의 입을 가로막는다.

“나에게 나만의 건강 비결이 있지. 가르쳐 줄 테니 자네도 한번 해 볼 텐가?”

“예, 한번 가르쳐 주세요.”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서 말이야, 그냥 볼일만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운동은 다 하는 거야. 어깨 비틀며 돌리기, 허리 돌리기, 목 좌우상하로 돌리기, 팔목·발목 돌리기, 배 두드리기와 가슴 쓰다듬기 등등. 그중에서 특히 배 두드리기와 가슴 쓰다듬기가 중요해.”

“어떻게 두드리고 어떻게 부비는데요?”

“그게 말일세,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100번은 배꼽을 중심으로 위로 올려치고, 100번은 아래로 내리치고, 100번은 가운데를 쳐야 해. 그런 다음 두 손바닥으로 가슴을 100번 부비면 건강법으론 최고지. 허허허.”



원장님이 배 두드리기 건강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오래전 소설가 정비석 선생이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건강법을 묻는 기자에게 “배를 하루에 200번 두드린다”는 말을 듣고부터였다고 한다.

원장님이 동방식 속기법을 창안하여 발표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48년 2월이었고, 우리나라 속기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바로 그해에 대조출판사에서 현재의 동방식(東邦式)인 <해방속기>를 저술하여 서울 을지로4가에다 해방속기학원(동년 8월 東邦速記專門學館으로 개명)을 개원, 후진 양성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보급되던 속기법식은 1946년 종로3가에 일파식속기사 양성소를 개원한 장기태(張基泰)의 일파식(逸波式), 1947년 을지로5가에 중앙속기학원을 개원한 박인태(朴寅泰)의 중앙식(中央式), 1948년 안암동에 속기연구소를 개원한 강준원(姜駿遠)의 서울식, 동년 효창동에 고려속기학원을 개원한 김천한(金天漢)의 고려식(高麗式), 동년 남대문로에 조선속기학원을 개원한 조선식(朝鮮式) 등이었다.

“그 당시 속기술 창안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각자 자기 법식의 우월성을 강조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변에 열변을 토했어. 그야말로 5밀리 10 밀리를 가지고 다투는 좀생이들의 전쟁이었다고 할까…… 녹음기가 널리 보급되지 못했던 때라 일반인들의 속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고, 속기인들의 속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어. 나는 그때 학원 강의뿐 아니라 학교 강의, 군부대 속기병 양성 강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헌병총사령부 지도과장이 자기 차를 ‘내 차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라’고 할 정도로 속기사의 위상은 대단했었지. 6·25 사변 당시 대구에다 동방신문학원을 설립



하여 운영할 때는 신문사의 주필·편집국장·논설위원들을 강사로 모셨기 때문에 이동근이란 이름은 신문사에도 잘 알려져 있었어. 영화배우로 유명한 최은희의 영화데뷔 인터뷰 속기도 내가 했고……”

원장님의 삼사십대 시절 화려했던 속기활동 얘기를 듣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원장님 젊은 시절에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속기학원에서 돈 들어오고, 신문학원에서 돈 들어오고……”

주방에서 아내와 함께 담소하고 있던 사모님이 한마디 거든다.

내친김에 기자는 사모님의 얘기도 듣고 싶어 자리를 함께할 것을 부탁했다.

원장님과 사모님의 결혼은 연애결혼이다.

사모님 안반철(安盤鐵) 여사의 올해 연

세는 80세, 원장님과의 나이 차는 열한 살이다. 그러니까 결혼 당시 원장님의 나이가 36세였고, 사모님의 나이는 25세였다.

결혼 전 초등학교 교사였던 사모님이 자기보다 열한 살이나 나이가 많은 노총각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원장님의 집요한 구애와 신앙이었다.



이동근 선생님과 안반철 사모님



원장님은 거의 매주 한 번씩 당시 대구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모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사모님의 마음을 더욱 움직인 것은 원장님에 대한 신앙적인 믿음이었다.

사모님은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원장님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가 잘 통했으며, 2년간 연애시절을 거쳐 결혼에 골인했다.

현재 원장님 내외가 섬기고 있는 금촌새힘교회에서는 이들 부부의 결혼 57년차 되던 해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자녀들 또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도록 잘 양육했다”는 이유로 원장님 내외분을 잉꼬부부로 선정한 적이 있다.

원장님의 취미는 TV 스포츠뉴스를 시청하는 것.

청소년 시절 원장님은 만능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였다.

테니스,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등 구기운동은 못 하는 것이 없었고, 특히 수영 실력은 한강을 왕복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요즘 내 친구는 텔레비전이야. 시력이 좋지 않아 신문은 못 읽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는 텔레비전에서 얻는 것이 고작이야.”

하지만 원장님은 현재 주어진 자신의 모든 여건을 감사하게 여기는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도 또한 감사기도가 대부분이다.

두 시간 가까운 인터뷰를 마치고 작별인사하는 제자에게 “그래도 생활속 기로는 수필속기가 제격인데 말이야……”라고 여운을 남기는 원장님의 한마디가 수필속기사인 기자에게는 또 다른 속제로 받아들여진다.



속기는 시간을 타고

◎ 권 초 룡

PRODUCTION



제목을 적고 보니 영화사상 최고의 뮤지컬로 평가받는 사랑은 비를 타고(Singin' in the rain, 1952)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연을 맡은 진 켈리가 캐시의 사랑을 확인한 후 그 벅찬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던 장면 말입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산을 휘두르며, 노래를 부르며, 첨벙첨벙 탭댄스를 추던 진 켈리의 엄청난 탄력과 즐거운 도약이 참으로 인상 깊었지요. 독



자들도 한 번쯤은 콧노래로 I'm singing in the rain~Just singing in the rain ~ 하고 흥얼거리 보았을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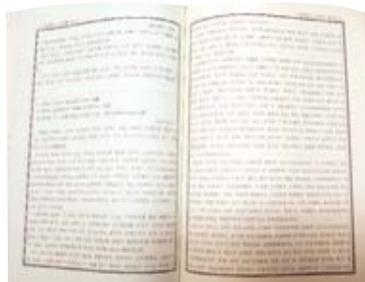
이번 호 「속기계」에서는 속기 창안 100주년을 기념한 많은 글들이 소개 될 텐데요, 제 글은 심도보다는 상쾌한 뮤지컬 한 편 가볍게 감상하자는 느낌으로 시간과 함께 흘러온 속기계의 이모저모를 사진 자료를 통해 둘러보았습니다.

박여일 선생이 속기법을 창안한 지 100년, 그간 속기술의 방법은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했습니다. 제헌국회 당시는 속기체계가 없어 일본어 속기를 했습니다. 우리말을 들으며 일본어 속기로 기록하고, 일본어로 정리된 문장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여 회의록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 속기를 배운 왜정시대의 속기사들이 한글 속기를 고안해 내 실용화에까지 성공하였고, 이후에는 미제 속기타자기를 들여와 한글로 개조한 한글 속기타자기가 활용되기도 했으나 실용 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컴퓨터속기가 본격화됩니다.





회의록의 형태도 시간을 타고 변화해 왔습니다. 종이회의록에서 전자회의록을 거쳐 최근엔 지방의회에서도 영상회의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록



대구광역시의회 영상회의록



일터 또한 참으로 다양해졌습니다. 국회, 법원, 지방의회, 국무회의, 사설 속기사무소를 비롯해 검찰까지, 최근에는 자막방송이나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가 속기사에 의해 제공되기도 합니다.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학습지원사'의 활동모습

특이하게도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는 속기사님도 계십니다. 세계 최초 장애인 국가공인 컴퓨터속기사 심준구 씨, 2008년 한국PD대상에서 라디오 진행자 부문을 수상하기까지 했다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속기사의 산실인 국회의사당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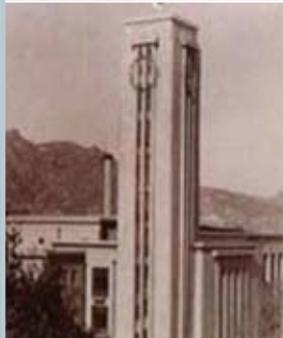
◀ 구 중앙청
제헌국회의사당

▶ 제헌국회 개회식
1948.5.31



◀ 6·25전쟁 중
임시 의사당으로 쓰인
경남도청 내 무덕정

▶ 무덕정 의사당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 태평로 국회의사당
(현 서울시의회 건물)

▶ 태평로 의사당
본회의장



◀ 현 여의도 국회의사당
(1975. 9. ~)

▶ 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그 안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속기사들의 모습입니다.



조창순 선생님께서 보내 주신 사진입니다. '1965년이나 1966년 여름, 국회의원 프락치 사건. TV가 처음 방송될 때 동양TV인가에 나왔던 사진이 예요.'라고 설명을 보내 주셨습니다. 40년이 더 지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반소매 제복과 탁상시계만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줍니다.



김희자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사진 위에 '김진만' '고건 아버지' '김영삼' '김대중' 이라고 친절하게 표시까지 해서 보내 주셨습니



다. 전 대통령이 두 분이나... 늘 결정적 장소에 함께하는 속기사들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국정감사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과는 달리 증인선서 때에 속기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했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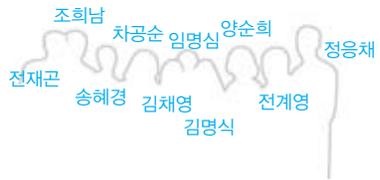


마찬가지로 김희자 선생님께서 보내 주신 사진입니다. 그때의 선배님들도 지금의 후배들처럼 소리에 집중, 또 집중하는 모습이지요?



다음에 이어지는 사진들은 제복의 변천사입니다. 지방의회나 법원에도 요청을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모아진 자료들은 대부분이 국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속기사들입니다. 그녀들의 모습이 참으로 당당합니다. 현재 국회사무처 속기사 제복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사진입니다. 김채영 선생님께서 보내 주셨는데요, '1972. 4. 26. 김포에서' 라는 짧은 메모 속에 담긴 아련한 추억이 보입니



다. 지금의 제복은 활동의 편의성이 강조된 바지 제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아찔하게 짧았네요. 서서 저 정도 길이면 앉아서는 더 짧아질 텐데요. 지금보다 더욱 조신했어야 되겠습니다.



김학순 회원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긴 치마와 복고풍의 칼라가 눈에 띕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겠지요?



긴 치마, 블라우스, 반소매 제복이 여성스러움을 풍깁니다. 지금의 카리스마는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에 청초함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91. 9. 19. 독립기념관에서’ 라는 메모를 통해 국정감사 중 남긴 사진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2006년 퇴직하신 김채영 선생님 외 현재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세 분의 속기사님 모습입니다.



흔치 않은 남성 속기사님들이 제복을 입은 옛 모습입니다. 요즘 F4(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네 주인공) 부럽지 않은 외모지요?



100년이라는 역사에 비해서는 빈약한 자료의 체계 정도에 대한 아쉬움에서 구상했던 글입니다. 구상 당시에는 좀더 방대하였습니다. 교육기관의 변천, 특이한 이력을 소유한 속기사, 속기 동호회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외국 속기사들의 활동 모습도 보여 드리고 싶었고, 속기 혹은 속기사에 관한 이색 스토리도 들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도 있었지만 지면이 허락지 않아 보내 주신 자료 모두를 신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한 느낌이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수집된 자료를 인터넷 블로그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게시를 할 생각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다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lampya@na.go.kr)

그리고 더 바라건대 결코 짧지 않은 지난 100년의 시간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다른 기록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기억하는 작업이 협회 차원에서 차곡차곡 쌓여지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박여일 선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 시대의 한 사람이 살아 내고 있는 속기인으로서의 순간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 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진의 중앙에 앉아 있는 당신, 역사의 주인공인 당신,
다시 또 파이팅!!

@ 자료 보내 주신 분들께(한국스테노 / 소리자바 / 경기도의회 / 영동군의회 / 한국재활복지대학 차은영 님 / 김채영 님 / 조창순 님 / 김희자 님 / 김란희 님 / 김학순 님 / 김은숙 님 / 홍은주 님 / 이근억 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 IPRS 참가 보고

◎ 국 제 부



IPRS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1. 기 간 : 2008년 8. 18(월) ~ 8. 23(토)

2. 장 소 : 네덜란드 헤이그

3. 한국대표 : 유점임(협회 홍보부장)

강지유(협회 연구위간사)

4. 참가국 및 참가 인원

■ 11개국 35명 참가

아이슬란드, 영국(웨스트민스터, 북아일랜드, 웨일스),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시슬리), 독일, 폴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한국, 네덜란드.

5. IPRS란?

IPRS(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는 INTERSTENO 조직 내의 의회속기사부로서, 의회속기사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통해서 의회 속기사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단일 국가든 연방제 국가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출범된 단체임.

6. 참가 목적

- ① INTERSTENO 총회와 IPRS의 분리라는 새로운 시도에 동참함으로써 의회 회의의 기록방식 및 자체 프로그램, 기록보존시설 및 장비 등의 정보를 교환.
- ② IPRS 회원국들의 방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기록의 롤모델을 찾아봄으로써 우리 기록문화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

7. IPRS 회의 및 간담회 내용

- ① IPRS 회의 : 직업 관련 다섯 가지 주제(요약 리포트, 네덜란드 속기부가 발표한 의회에 제공된 새로운 서비스, 원고 작성 시간, 의회 속기사와 법원 속기사의 차이, 새로운 속기사들의 선발과 교육)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 진지한 토론을 함.

※ 상세한 토론 내용은 2008 IPRS 회의록 참조



② 간담회

- IPRS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장일치로 채택.
- IPRS를 위한 포럼 구성 제안은 환영을 받음.

(현재 INTERSTENO 운영진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연구 중)

8. 성과 및 건의사항

- 1) 세계 각국의 의회속기사부 모임인 IPRS MEETING을 통해 세계 의회속기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환, 자료 공유를 통해 기록문화 발전과 회의록 서비스 체제의 향상을 기할 수 있었음.
- 2) 네덜란드 의회 방문을 통해, 속기 업무와 작업 방법에 관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회의록 발간 및 보존체계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의회기록 관계자들과의 연대 강화와 글로벌 마인드 제고에 기여함.
- 3) 속기계의 국제행사인 INTERSTENO 참석 시 총회 · 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총회 내 조직인 IPRS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의회기록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필요.
이를 위해, IPRS 회의에의 지속적 참여가 필요함.



다음 내용은 인터스테노 소식지에 실린
08년 헤이그 IPRS 회의록을 번역 정리한 글입니다.

모임의 두 번째 날, 참석자들은 하원의회에 초청받았다. 의회에서 제공한 점심 만찬 후에 네덜란드 속기부에서 예약해 놓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토론이 열렸다. 토론은 오후 내내 생동감 있게 진행되었다.

▣ 실시간 캡처링 ▣

먼저 네덜란드 참석자 중의 1명인 Lida Horlings 씨가 자신의 에이전시 동료인 Daniel Tuijnman을 소개했다. Lida Horlings는 Daniel



Tuijnman을 이번 모임을 위해 특별히 고용했는데 그는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네덜란드 속기사 중의 1명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연설을 서브타이틀할 수 있는 Veyboard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속기기계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매우 일반적이지만 유럽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네덜란드 하원의회에서 최초로 실시된 시범이었다.

Daniel은 Veyboard를 자신의 노트북과 프로젝터와 연결해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Veyboard로 타이핑한 것을 스크린으로 바로 볼 수 있었다.

또한 Lida는 자신의 속기 에이전시에 대해 간단한 소개도 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Veyboard를 사용해서 라이브 서브타이틀을 할 수 있는 속기사가 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 모두는 Lida의 동료이며 Lida의 회의 속기 에이전시에서 필요한 고객들에게 라이브 서브타이틀을 제공하고 있었다.

Daniel Tuijnman는 네덜란드 속기기계의 발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원래는 Velotype였는데 지금은 Veyboard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속기기계처럼 한 번에 여러 글자를 타이핑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가 이것을 정상 텍스트로 변문한다. 그러나 Veyboard는 모든 글자를 타이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속기기계와는 다르다. 그것은 원래 Velotype가 속기 타자기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약자를 쓰는 시스템이 결합되지 않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숙련된 Veyboard 사용자들은 약자를 삽입할 수도 있지만 미국 속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약자 시스템은 없다.

유럽의회 속기회에서는 속기기계를 사용하는 속기사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 내용을 캡처해서 나중에 원고를 작성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유럽 의회에서 속기기계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문제점은 보통의 경우 많은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유럽 속기사들은 먼저 캡처하고 나중에 작성하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

■ 요약 리포트 ■

다음 토론의 주제는 요약 리포트의 필요성과 이것이 전문 속기사들의 책무인지 아니면 의회의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였다.

시슬리의 지방의회의 Fabrizio Verruso가 자신이 근무하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간단한 연설을 했는데 이전에는 위원회 직원들이 작성했던 위원



회 회의의 요약 리포트를 지금은 의회 속기사들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축어적(verbatim) 리포트만 작성하면 됐던 속기사들에게는 새로운 책무이다. 이제 속기사들이 의원들의 단순한 발언뿐만 아니라 발언의 비평적 요소까지 짧은 시간에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일반 표기(longhand) 방법으로 작성되는 것보다 축어적 속기 리포트를 기초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결정이었다.

지금까지 Fabrizio Verruso의 스텝 중에서 3명의 속기사가 축어적 기록을 기초로 해서 요약 리포트 작성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일은 아주 특별한 책무였고 모든 속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배경지식 없이는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주제와 정치적 측면의 배경지식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보람 있고 의회 속기사들의 사기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일이었다.

Fabrizio Verruso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스텝을 훈련시켜 위원회 회기 동안에는 최소 2명 이상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중에 요약 리포트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도 있었다.

많은 의회에서 요약 리포트 작성을 하라는 요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치가들, 관련 직원들과 대중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특정 주제들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어적 리포트들을 통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량의 문서를 읽지 않고서도 특정 주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 리포트는 여전히 작성되고 있지만 토론된 주제와 관련해서만 작성

되고 수정, 발언 내용과 발언자의 이름과 관련되어서만 작성된다. 이것들은 공식 서류이고 회의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부서에서 작성한다. 그러나 지방 의회에서는 여전히 더 상세한 요약 리포트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축어적 기록을 기초로 한 요약 리포트가 중요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리포트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에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공식적인 축어적 기록들보다 더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슬리의 경우 많은 위원회 회의가 다소 비공식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의회에서는 오디오 레코딩은 허락하지 않지만 속기사들이 하는 속기 또는 스테노마스크(stenomask)에 상당히 만족스러워 한다.

여러 해 전부터 네덜란드 속기회에서는 원래 위원회 직원들이 하던 위원회 요약 리포트 작성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5명의 속기사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속기사들이 이 특별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잘 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위원회 직원들이 축어적 리포트를 선호한다. 회의가 인터넷으로 방송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리포트에서는 어떤 부분을 정정하기도 훨씬 더 쉽고, 때로는 부가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발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업 리포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요약 리포트가 필요하다. 상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축어적 리포트를 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



면 그들은 어떤 의견의 요점, 결론과 결정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을 읽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약 리포트를 작성하는 많은 속기사들은 타이핑을 빨리하고 회의 중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때 자신들의 노트북을 사용한다. 물론 그들은 토론에 따른 각각의 주제에 대해 미리 충분한 지식을 숙지해야 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녹음기를 사용한다.

이 토론에 대한 결론을 맺자면 거의 대부분의 의회 속기부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련된 요약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포트들을 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고려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쟁은 그러한 책무가 의회 속기사들의 책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것은 항상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랐고 이제 의회 속기사들은 그러한 판단을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약 리포트는 위원회 담당 직원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위원회 속기사들이 요약 리포트들을 작성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한다면 매우 좋을 수도 있다. 상업계나 지방의회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속기사들은 그러한 기술을 위원회 회의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의회에 제공된 새로운 서비스 ▣

잠깐의 휴식시간 후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네덜란드 속기부가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네덜란드 의회에서 약 1년 정도 전부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요약이라기보다는 토의 중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화자의 이름과 결정의 순서를 적은 것이다. 이것은 목차 표보다는 더 상세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요약 리포트보다는 덜 상세하다. 이러한 보고서는 축어적 리포트와 평범한 요약 리포트의 중간 정도라 할 수 있는데, 저널리식(journalistic) 리포트는 아니다.

이러한 요약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토의가 끝나고 두 시간 후에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웹사이트에만 유일하게 게시되어 있다.

지금은 8명의 속기사들이 이 일과 관련하여 교육받고 있다. 그들은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리포트를 작성하고 편집해야 한다. 속기부 스텝 중의 1명이 텍스트가 최종적으로 웹사이트에 실릴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하원의장의 바람에 따라 이러한 결정은 매우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녀는 이러한 책무가 의회의 다른 부서가 아닌 속기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의회 속기사들은 자신들이 축어적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보다 의회에 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것은 속기부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 멤버들은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무척 감사하고 있다.

▣ 원고 작성 시간 ▣



다음 토론의 주제는 최종 원고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Dave Rogala는 자신의 스테노마스크를 사용하여 5분 정도 분량의 초안을 자신의 속기기계로 대략 12분 안에 작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디오 레코딩으로 체크·수정하고 철자 체크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5분짜리 최종 원고를 대략 30분 안에 작성한다.

미국 의회에서 속기사들은 15분 간격으로 속기, 교대한다. 그들은 CAT 기술을 이용해서 60분에서 75분 만에 원고 작성을 완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는 편집자가 그것을 포맷한 후에만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캐나다에서는 2명의 영어 속기사와 2명의 프랑스어 속기사가 본회의 회기 동안에 10분 간격으로 속기, 교대한다. 텍스트는 실시간으로 작성되고 내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발행된다. 최종 원고를 작성하는 데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최종 원고는 매우 빨리 발행된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회기 바로 다음날 원고가 반드시 발행될 필요는 없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속기사들은 15분 간격으로 속기, 교대한다. 최종 원고를 발행하는 시간은 토의한 시간에 따라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주어진다.

영국에서는 16명의 속기사들이 15분 간격으로 속기, 교대를 한다. 최종 원고를 작성하는 데 60~7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나서 원고를 교정받기 위해서 편집자에서 전해진다. 회의록은 4시간 안에 인터넷에 올려진다.

한국에서는 본회의 동안에는 5분 간격으로 속기, 교대를 하고 최종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약 50~60분 정도 걸린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속기사들이 15분 간격으로 속기, 교대를 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데 약 2~3시간 정도 걸린다. 본회의 원고는 회의록 작성 즉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국회 내부에 제공하고 3일 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위원회 회의 원고는 2~3일 후에 회의록시스템에 등록된다.

이 토론에서 결론은 의회 속기부에 따라서 최종 원고를 작성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필요한 편집량과 편집 방법(속기사들 자체가 하는 경우와 편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따라서, 또 인터넷에 원고를 빠른 속도로 올리려 하는 의회의 요구, 또 근무 가능한 속기사들의 숫자와 현대적 기술력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원고 작성 시간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 의회 속기사들과 법원 속기사들의 차이 ▣

의회 속기사들과 법원 속기사들 간에는 다른 기술력이 필요한지와 이 두 그룹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두 그룹 모두 구어를 캡처하고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동일한 기술력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만의 리포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법원 속기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속기사들은 원고를 가능



한 글자 그대로 직역하여(literal) 작성해야 한다. 심지어 화자들의 실수조차도 보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는 법원 속기사들이 의회 속기사들을 돕도록 권고되고 있다. 그래서 법원 속기사들은 편집되어야 하는 축어적 원고를 작성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은 의회 속기부의 편집자에 의해 편집된다. 따라서 법원 속기사들이 의회 속기부 스텝을 돕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종 원고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나 특정한 의회 속기부에서 사용하는 방법대로 편집을 하도록 교육 받는 법원 속기사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법원 속기는 의회 속기의 토대라고도 한다. 교육 과정과 이론은 동일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의회 속기부에서 더 많은 교육이 필요로 하다.

법원 속기사들과 의회 속기사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법원 속기사들은 증인들이 하는 말을 선서조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선서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일을 할 때 원고는 항상 스크리프스트(scopist)들이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속기사들이 행한 실수는 삭제될 수 있는데 화자들이 한 실수는 절대 삭제되지 않는다.

속기사들은 공식 문서로 될 최종 원고에 사인해야만 한다. 따라서 법원 속기와 의회 속기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 새로운 속기사들의 선발과 교육 ▣

마지막으로 새로운 속기사들의 선발과 교육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선발 공고가 신문에 공고된다. 때때로 이러한 신문 공고는 영국의

경우처럼 많은 응시자들을 양산한다.

인터뷰와 시험 후에 단지 몇 명만이 3개월 과정의 자체 교육을 받게 된다. 그들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위원회 속기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이지만 교육은 계속된다. 다음 단계는 셀프 로깅(self-logging) 속기사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의회 속기사가 되는 것이다. 각 단계에 따라 알맞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다음 단계로 가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셀프 로깅할 때 속기사들은 그들이 담당해야 할 연설 부분과 관련된 요점을 보통의 필기법으로 작성하는데 이것은 다음 과정에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속기사 선발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의사당의 속기사들은 독일 속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젊은이들과 접촉하고 속기 직업에 대해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방문한다. 응시자들이 교육 과정에 선발된 후에 숙련된 속기사들은 그들의 멘토가 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새로운 응시자들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속기사는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격이 되는 응시자들은 2년 동안의 교육을 받게 된다.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속기사가 되려는 응시자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하는데 교육 과정이 길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



르바이트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는 의회 속기사도 전문 직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새로운 속기사가 일에 대해 숙련이 되면 곧 신문이나 방송계에서 다른 직업을 구한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속기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IPRS 뉴스레터 13호 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속기사 월급하고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직업의 특성과 관련된다. 속기사들은 의회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술과 함께 또한 특별해야 한다. 그들은 항상 뒤쪽에 있어야 하며 그들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다.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스텝을 선발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 속기부에서는 한 팀에 속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선호한다. 이것은 항상 가능하지는 않고 특히 프랑스 속기사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한번 팀이 되면 그들 스스로를 전문가가 되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교육 과정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텝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는데 왜냐하면 다른 대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속기사 선발이 가능하다. 신문에 공고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응시자들이 모인다. 응시 원서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만이 인터뷰를 받을 수 있고 인터뷰한 응시자 대부분은 시험을 보게 된다. 이러한 시험은 응시자의 일반 상식을 판단하고 정치와 사회, 경제, 네덜란드어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다. 게다가 그들은 실제 5분짜리 의회 연설문을 작성해 보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응시자

들이 구어를 문어적인 텍스트로 번역할 수 있는 감각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교육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나서 자체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생들은 그들의 멘토가 되는 숙련된 속기사들의 지도를 받게 된다. 멘토의 승인이 있어야만 교육생들은 속기사들로 임명된다.

근무 조건은 옛날보다 힘들지만 월급은 매우 좋다. 그래서 대부분의 속기사들은 오랫동안 근무하고 대부분이 퇴직할 때까지 속기 업무에 종사한다.

또한 웨일스에서는 최소한 1년 동안 지속되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 의회 속기사로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대부분이 학사 학위를 지녔다.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슬란드는 의회가 가장 소규모이고 따라서 속기 스텝들도 가장 적다. 단지 6명의 속기사와 3명의 타이피스트가 있다. 새로운 속기사는 신문 공고를 통해서 모집된다. 최소한 속기사들은 아이슬란드 대학교에서 받은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인터뷰와 시험 후에 한두 명이 선발된다. 그리고 나서 자체 교육이 시작된다. 월급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속기가 가능한 속기사들이나 속기 타이피스트들은 없다. 속기부는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구어를 캡처할 수 있고 필요한 문법적인 수정을 할 수 있는 속기사들이 필요하다. 응시자들은 대학 졸업생이어야 하고 언어 시험과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1년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차라리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교육생도 발견하게 된다.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교육생에게는 교육이 계속된다. 왜냐하면 훌륭한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1년



이상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사립학원을 수료하거나 대학 졸업생들이다. 교육생들은 2년 또는 3년 동안 지속되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속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의회 속기직에 응시하게 된다.

속기직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필기시험으로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을 보고 2차로 속기 실기시험을 본다. 합격한 후에는 부무 속기사가 되고 계속되는 교육을 통해서 대략 8년 정도가 지나면 주무 속기사가 된다.

▣ 토론을 마치며 ▣

Cees van Beurden은 토론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하원의회의 환대에 감사했고 특히 성공적인 IPRS 회의를 준비한 네덜란드 속기부장인 Jose Hageman와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기록 문화의 창조에서 시작되는 역사..

역사기록의 보석함, 나라기록관!

| 김나영 기자 |



역사의 기록은 미래의 후손들이 바라봐야 할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자 조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선조들을 본받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대의 국가 공공기록은 국정을 수행하는 수단이며 업무과정 중에 생산된다. 따라서 공공기록은 국정의 구상과 운영, 그리고 결과를 알려주며 국정 수행의 증거 역할을 한다. 기록이 있어야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고 국민은 정보 공

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기록, 특히 역사 기록의 중요성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공공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문화 유산이 된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를 서술할 수 없고 역사가 없으면 나라와 민족이 존재할 수 없다. 기록문화가 발전한 서구에서는 국가기록보존소가 그 나라 역사를 상징하는 최고의 문화기관이라고 한다. 공공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록 관리 방식의 틀은 그대로 민간의 기록에 대한 인식과 관리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록만큼이나 그 기록의 보존도 또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어느 봄날, 성남시에 위치한 나라기록관을 찾았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은 1999년 제정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現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록물의 전문 보존시설로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더욱 우수한 기록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나라기록관 전경

1962	내각사무처 총무과 촬영실 개설
1969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기록보존소 설립
1984	부산지소(現 역사기록관) 개소
1998	정부대전청사로 본소 이전
1999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나라기록관 신축 기본계획 수립
2004	성남 신축서고 착공
2007	나라기록관 직제 신설 및 청사 준공
2008	나라기록관 개관

나라기록관은 모든 전시관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또 보 관되어 있는 자료의 열람도 가능하다. 또 사전에 신청하면 견학을 시켜 주기도 하는 등 기록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그중에서 내가 선택한 것은 두 시간짜리 전문 견학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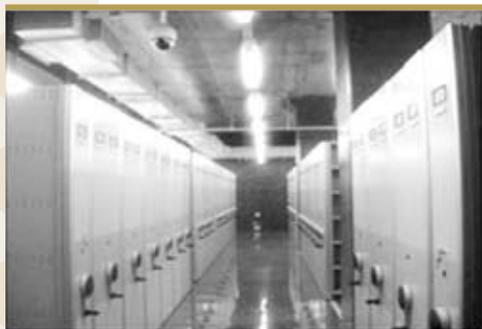
사전에 예약 과정을 거쳐서 날짜와 요일을 조정하고 갔었던 터라 적어도 10명 정도는 모여서 함께 견학을 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도착해 보니 나와 일행 단 둘뿐이어서 놀랐다. 단 2명을 위해 두 시간 동안 직원 한 사람을 투입하는 걸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록정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나라기록관의 노력이 느껴졌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처음으로 간 곳은 기록물 보존서고. 방대한 규모의 기록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보안이 철저해 또 다른 직원이 직접 나와 보안카드, 지문 채취 등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보존서고의 문이 열렸다. 그 직원은 우리가 설명을 듣는 내내 동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곳은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어서 저절로 설명에 집중이 되었던 곳으로 기억된다.

기록물 보존서고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방대한 규모로 되어 있고, 문서·카드·대장 같은 각종 종이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으로 총 61개 서고에 약 400만 권의 문서를 보존할 수 있는 일

반 문서고, 기록물의 보존매체인 마이크로필름을 보존하는 마이크로필름 서고, 흑백·컬러사진이나 영화필름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사진/필름 서고, 자기테이프·하드디스크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보존하는 전자매체 서고, 공공기관에서 사용되었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갖는 행정박물류를 보존하는 행정박물 서고,



보존서고 내부 모습

각급 기관의 건축·항공·지적 등의 도면을 보존하는 도면 서고, 특수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한 유화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유화 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고 내부에는 최첨단 항온·항습 설비, 보안·출입통제시스템 및 방폭·내진·소화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모든 바닥과 천장이 노출형 공법으로 건축되었고 서고 내부는 모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기록물에 무해한 환경으로 내부가 설계되어 있어서 기록 보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듯 보였다. 어쩐지 서고에 들어오자마자 밀폐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하고 쾌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완벽한 보존을 위해서 습도와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기록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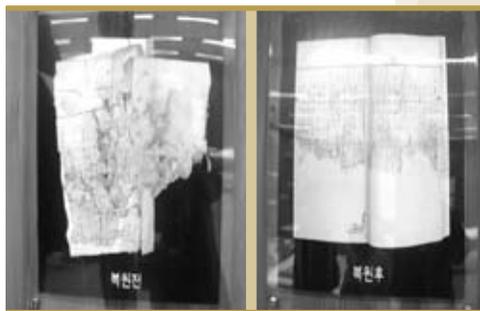
지만 이곳의 임무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물 보관·관리가 다가 아니었다. 우리의 역사기록을 최고의 기록보존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보존하고 있었다.

보존수명이 짧고 훼손될 우려가 높은 역사기록물은 재질별 특성에 따라 보존처리나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고 있었는데, 기록물 보존처리 작업실의 작업동선과 장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니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기록물 보존복원실에는 복원 방법에 따라 시청각실, 복원실, 마이크로필름실, 스캐닝실, 제본실, 탈산실, 소독실 등의 다양한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꼈던 곳 몇 곳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놀랐던 곳은 단연 복원실.

다양한 종이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 부적절한 보관방법 및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훼손되어 이에 대한 올바른 복원 처리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나라기록관은 전문 복원실을 구축하여 보존 가치가 높으면서도 물리·화학적 훼손이 심각한 기록물들에 대해 수선·복원 처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훼손 심화 및 멸실을 방지하여 원본 기록물의



보존성 증대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복원 전 상태조사를 한 후 자료를 해체하고 건식 혹은 습식 클리닝을 거쳐 결손부 보강 및 배접 등의 방법으로 위 사진처럼 훼손되었던 기록물을 복원해 내는 과정을 거친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게 훼손된 종이 자료를 저렇게 완벽에 가깝게 복원해 내는 과정이 참 대단하면서도 놀라웠다. 우리가 복원실에 갔을 때 실제로 훼손된 자료의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많은 과정을 보고 오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복원실 못지않게 인상 깊었던 곳은 탈산실.

소장기록물 중 해방 이후 생산된 문서의 80% 이상이 산성화로 인해 변색되거나 재질이 약화되어 훼손이 진행되는 보존성이 취약한 산성용지라고 한다. 그래서 탈산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종이 기록물의 보존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었다.



탈산실

또한 나라기록관에는 우수한 기록문화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첨단 전시기법을 적용한 체험전시 코너를 설치해 기록관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국가기록전시관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나라의 중요 기

기록물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전시한 제1섹션과 기록문화의 계승을 위해 현재의 기록관리체계를 소개하는 제2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견학의 마지막 코스는 역대 대통령의 활동상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대통령의 주요활동 사진과 재임기간 중에 만들어진 중요문서나 동영상기록 등을 전시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전시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제16대 노무현 대통령까지의 국정수행활동을 총 6개 코너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외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하여 각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두 시간 동안 돌아본 나라기록관.

그곳은 우리의 정보가 모이고 역사가 숨쉬며 미래가 보이는 기관이었다.

우리는 기록물을 생산해 내는 속기사다. 현대사회의 역사를 현장에서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거기만큼만 미치는 것은 기록물 생산 업무만으로도 쉽게 과부하가 걸려 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어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역사가 과연 소설일까 진실일까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역사 해석의 관점에 달려 있겠지만 이 시대의 국민들이, 더 나

아가 후손들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든 세상이 바뀌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역사기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소설이 아닌 진실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성만큼이나 기록의 관리, 원형 그대로의 보존의 필요성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나라기록관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우리부터라도 그만큼 기록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록문화의 전통을 재확립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지면이 허락지 않아 업무시설과 복원 과정에 대해서 깊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 나라기록관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나라기록관 견학을 맺는다.

전시관 관람

견학신청
열람방법

www.archives.go.kr

<http://contents.archives.go.kr>

담양군 의회를 가다.

| 제신지 기자 |



찬란한 빛의 달 6월, 사업부에서 담양군으로 사전답사를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담양군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사업부 출장팀에 물어 담양군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담양까지는 4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모인 멤버들은 차를 타고 가는 것만으로도 한나절을 보내게

되어 약간의 지친 기색이 있었지만, 이내 나타난 전라도의 시원 시원하게 펼쳐진 평야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은 완전 가슴 설레게 하며 일행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드디어 도착한 담양군의회!

먼저 계장님 이하 의회 직원 분들께서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별 어색함 없이 자리를 함께하면서 의회의 대략적인 안내와 소개를 받을 수 있었다.

담양군의회는 1990년 12월 31일에 개정·공포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실시, 12개 선거구에서 12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같은 해 4월 15일에 초대 담양군의회가 개원된 후, 1995년 2대, 1998년 3대, 2002년에는 4대 담양군의회가 개원되었고 2006년에 제5대 의회가 개원되었는데 4개 선거구에서 8명이, 비례대표로 1명이 선출되어서 현재 총 9명의 의원들이 담양군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사업부의 개략적인 면담이 끝나고 나서 담양군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심현아·신정선 속기사님을 소개받았는데 두 분 다 너무 예뻐서서 깜짝 놀랐다. 두 분 다 CAS 컴퓨터속기사이고 근무하신 지는 3년 정도 된다고 한다. 이전에 근무하셨던 수필속기사님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후임으로 두 분이 일을 맡고 계시다고 한다.

담양군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정례회는 7월과 12월에 열리고 임시회는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열린다고 한다.

정례회의는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3개(의회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회의장 내 근무형태는 어떠한가 했더니 두 분이 본회의와 상임위 3개를 각각 2개씩 전담해서 회의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박이로 속기를 하신다고 한다. 감사회의의 경우 대개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 3, 4시쯤 되면 끝이 나지만 가끔 안전에 따라 길어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였다. 그런 경우에 서로 대체가 되느냐고 했더니 그런 것 없이 맡은 속기사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원고는 하루 만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 당일 밤 9시나 10시까지 1차 변문(초안과 교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하기에 다소 벅찬 감이 있다고 하셨다.

회의록으로 나오기까지 계장님께서 교정을 보고 또 담당 속기사가 여러 번 교정을 보는데 총 네다섯 번 정도의 교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속기사의 인쇄 결정이 내려지면 회의록 제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회의록은 회의를 하고 나서 그때마다 제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량이 모이면 인쇄를 하게 되는데 1년에 많이 하면 세 번 정도의 제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게 회의록이 나오면 인근의 자매결연기관인 달서군의회

라든지 국회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가 되고 또한 이 회의록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도 이루어진다.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민감한 안건을 논의하다가 혹은 돌출 발언으로 인해 정회를 하게 될 경우 힘들지 않은가 물어보았더니 의원님들이 모두 민주당이라서 사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 회의는 별 탈 없이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하니 본 기자 입장로서는 참 부러울 따름이다.

본 기자는 의회를 방문한 것 자체가 처음인지라 조심스럽게 회의장 안내를 부탁드렸더니 흔쾌한 허락과 함께 심현아 속기사의 친절한 안내로 본회의 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돌아볼 수 있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



본회의장

본회의 회의장에는 따로 녹음을 하는 방송실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방송실이 없는 대신 녹음시설이 있어서 속기사가 직접 녹음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주 잘 마련되어 있었다.

또 하나 놀란 점은 각 회의장마다 컴퓨터속기 기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개 회의가 동시에 열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속기사가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니며 기계를 설치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하였다.

그렇게 각 회의장을 둘러보고 난 뒤에 담양군의회 의장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의장님은 참 인자하시고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지 담양군의회는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두 분 속기사의



담양군의회 양대수 의장님과 함께

의 치우 개선—의장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속기사가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내보이시면서 국회 차원으로 건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길을 알려 달라고 하셨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면에 감동받았다.

끝으로 의회 내부를 속속들이 보게 해 주시고 그 이후 일정에도 우리를 끝까지 보좌해 주신 계장님과 심현아·신정선 속기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나마 전한다. 또한 홍보부 완전

초짜 기자의 의회탐방 첫 데뷔를 도와주신 사업부 출장팀 모두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속기사가 된 이후 국회에서만 죽 지내왔던 나에게는 이번 담양군의회 탐방은 인상 깊고 즐거운 탐방이었다.



전희주 의회사무과장, 신정선·심현아 속기사, 김동진 의사담당계장

제16회 속기학술세미나에 대한 소회

| 오근순 |

어떤 일을 하든 만족이란 없나 봅니다. 세 번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치르면서 한 번도 ‘이번엔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매년 치르는 연례행사지만 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세미나에 대한 걱정도 같이 따라옵니다. 매년 해 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매년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미나는 매년 늦봄쯤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늦어지기 일쑤입니다. 열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속기학술세미나도 여지없이 좀 늦어져 계획했던 날짜보다 두 달이나 늦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한테는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세미나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아무 탈 없이 잘 치러야지 하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드는 탓에 마음 한쪽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얹어 놓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시간은 잘도 가더군요.

세미나의 첫 단계는 물론 계획입니다. 날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정확하게 잡을 수 없지만 대강의 틀은 세워 놔야 합니다.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라는 계획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세미나도 그런 기본 계획 아래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이유로 좀 늦춰진 8월 말로 날짜가 잡혔고 세부계획도 그에 맞게 다시 고쳐야만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세미나 개최장소를 물색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경험상 세미나 개최장소는 속기학술세미나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속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 일이니 만큼 전국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잘 선택되는 곳이 중부지방에 있는 콘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수가 있어 강원도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다음이 바로 실행단계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입니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는 만반의 준비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세미나 전날 선발대가 개최지로 떠납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선발대가 느끼는 책임감은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해마다 선발대 팀장을 맡아서 해 온 나로서는 그랬습니다. 선발대가 해야 할 일은 세미나 개최장소에 미리 가서 세미나를 위한 사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외에

도 다른 부수적인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미나 기념사진 촬영장소를 물색하는 일 등등입니다.



그다음에 세미나 당일 다른 세미나 진행요원들과 힘을 합쳐 세미나를 멋지게 끝내는 일입니다. 세미나 당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속기인들을 맞이하고 세미나에 대한 안내, 진행 또 2부 행사까지 모든 일을 진행요원들과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세미나 첫날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우리 속기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교양에 관한 강의를 계획되어 있었고, 둘째 날에는 주변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박영삼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팀장님께서 우리 속기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글속기에 대한 직무분석 및 자격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명강의-사실 세미나 진행요원이라 강의를 온전히 다 듣지는 못했지만-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를 다 끝나고 저녁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 드디어 즐거운 2부 행사 시간, 그야말로 맘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매번 비슷한 게임과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전국의 속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무척

즐겁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참 즐겁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노래하면서 서로들 안부며 사는 얘기며 두루두루 하는 게 1년에 한 번이라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미나 첫날이 지나면 둘째 날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밤새 정을 나누느라 피곤들 하시겠지만 계획된 일정대로 움직여야 하는 관계로 모두 정해진 시간에 아침식사를 하고 단체사진—한여름이라 화려한 꽃무더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마지막 뽑내기를 하고 있는 들국화(?)를 배경으로 멋지게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탑승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이동한 곳은 ‘이효석 문화마을’입니다. 이효석님은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작가십니다. 아마도 강원도의 자랑이 아닌가 합니다. 메밀은 강원도 지방에서 유명한 식물이지요. 따라서 메밀로 만든 메밀부침개가 아주 일품입니다. 물론 메밀묵도요. 메밀부침개에 메밀묵을 안주 삼아 막걸리 한 잔 쭈~욱 들이키면 참 좋겠지만 일정이 남은 관계로 그냥 마음으로만 먹었습니다.

그다음은 계획된 일정의 마지막 단계인 점심식사, 맛있는 점심을 드시게

하고픈 게 제 마음입니다만 이번 메뉴는 두부전골로 무난한 음식인데 다들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맛있게 드셨기를 바라고, 점심식사를 끝으로 공식적인 일정은 모두 끝나고 이제 댁으로 무사히 잘 가시기를 빌면서 배웅해 드리면서 제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16회 세미나도 아무 일 없이 끝났고, 모두들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행사를 진행했지만 매년 돌이켜 볼 때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걸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또 다음에도 세미나를 준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세미나를 치르면서 부족하나마 내 한 힘을 보태 속기인들에게 1년에 한 번이지만 필요한 강의도 듣고 만나서 즐겁게 얘기도 하고 정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또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속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 박장원 |

저는 국가공인1급속기사 박장원입니다.

2001년 4월에 속기사무소를 시작하여 2008년 말까지 경기도 안산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서 속기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경기도 수원에서 속기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속기학원(안산)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처음 녹취를 해 본 것이 박장원 속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속기사무소를 시작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작은 것이었지만 지금의 속기사무소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속기를 빨리 받아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필자는 자격

증을 따며 한국가스속기협회(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 연수를 받으면서 속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속기자격증을 따고 실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필자, 또는 다른 초보 속기사들에게 협회에서의 연수생활은 속기사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연수를 받으면서 문장의 중요성, 띄어쓰기, 문장부호가 속기록 내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단지 법원에 제출되는 녹음내용의 속기록이 다인 줄 알았던 필자는 처음으로 주주총회 속기록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이 작성되는 과정,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게 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수만 받았다고 해서 실무에 나가서 통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사람을 상대한다든지, 변호사·법무사 사무소 등 법률사무소와의 관계, 거래처와의 물꼬를 트는 일 등은 정말 너무나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면 변호사·법무사 사무소 등에 가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필자도 무작정 명함과 판촉물을 들고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자신의 준비된 멘트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속기사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우선 가볍게 인사하고 속기사사무소의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후 준비했던 명함과 판촉물만 주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현실을 뚫고 나가다 보니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속기록 작성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피곤

했던 몸에 활기가 났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기사무소를 운영하는 8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속기사가 갖추어야 할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속기법의 제정 또한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지식 습득

속기사무소에서의 업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녹음속기록,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속기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뉴타운사업 등의 조합총회(주민총회) 및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회의의 속기록 작성, 협회 및 종종 등의 단체에서 행해지는 총회 속기록 작성 등이 가장 큰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기사는 속기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속기는 속기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의 습득, 이해 등이 동반된다면 의뢰인 또는 거래처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속기사가 될 수 있다고 필자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민·형사상의 의뢰인을 상대할 때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뢰인의 말 한마디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녹음속기록에 대해서 현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속기사의 지식, 즉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법

률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의뢰인에게 간단하게나마 몇 분이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속기사무소를 운영하는 속기사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주총회의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는 상법의 이해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관련 지식의 습득은 개인투자라든가, 펀드 등의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속기사무소 또한 상법의 지식 습득은 꼭 필요하며,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회사 상황 등을 언제나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뉴타운사업 등의 조합총회(주민총회) 및 사업 시행의 전반적인 회의의 속기록 작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속기사가 법관이 아닌 이상 이러한 법률을 모두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알아두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배워두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도정법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자에게는 인터넷상의 블로그에 관련 정보가 많이 있어 전국에서 문의전화까지 꽤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습득, 스크랩 등을 하고 있지만 어느 사업장에서든 문의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정비사(또는 주거환경전문가)라는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기사로서가 아닌 전문가로서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의 다양한 지식은 속기사가 꼭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동시통역사에게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통역사는 어느 분야건 동시통역을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것은 동시통역사 본인이 직접 듣는 원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통역사 본인의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의사전달이 안 될 것입니다. 동시통역사들의 전문지식의 습득은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속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전문분야건 현장에서 기록을 할 때 먼저 그날의 쟁점사항 등 논의사항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기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 속기법 제정의 필요성

첫 번째, 속기록의 공증에 관한 문제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녹음속기록은 속기사 개인의 공증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의 공증은 공증인법, 즉 법무법인의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속기록 공증

을 해 달라' 이는 속기록에 관해서 변호사의 공증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접한 속기록 공증은 결국 서류 공증일 뿐이었습니다. 속기록을 가지고 가서 속기사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공증절차를 밟은 후 변호사의 도장으로 인증서가 되는 것이 속기록의 공증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속기법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딱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기사의 속기록은 변호사의 별도 공증 없이 증거자료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도 법원 등의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공증을 요구합니다.

만약 속기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고, 의뢰인들은 속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속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상법상에 속기록 작성의 명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은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에 의거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록은 결국 제삼자나 관계기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회사 내부의 서류이지만 상법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등기를 위해서 의사록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록의 효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등기는 상업등기법 제7절(주식회사의 등기)에 의하여 의사록이 필요하며, 의사록의 공증 또는 등기이사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주주총회 속기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사록을 꼭 작성해야 하고, 속기록 자체만으로는 법인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의사록의 공증 또는 등기이사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굳이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서의 속기록에 관한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의사록, 그리고 등기이사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만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속기사라는 제삼자의 속기록만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법에서의 속기록의 명문화, 속기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장 주식회사에서는 속기록 작성을 하지 않으며, 주로 의사록의 공증만으로 법인등기를 하기 때문에 속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모두 법인사업이기 때문에 등기를 위해서 속기록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다행히 도정법상에 속기록의 명문화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 작성이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를 위해서 속기록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 협회자격증·녹취사라는 사설기관 자격증으로 속기사무소를 개소하는 문제로 인해서 속기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속기사무소들이 크게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

호사로 비유해 본다면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니다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무자격자, 사설기관 자격증 등으로 속기사무소가 난립이 되어진다면 속기사무소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만든 속기록은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속기법의 제정 후 또는 상법 및 도정법 등 관련법에서의 속기록의 증거능력에 비추어 볼 때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속기법 및 관련법에서의 속기록에 대한 명문화가 없는 현재의 상황은 무자격자의 속기사무소 난립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속기법 제정 및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무자격자의 속기록은 제대로 작성이 됐든 안 됐든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기법 제정이나 상법, 상업등기법에서의 속기록의 명문화는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제 겨우 실무 8년밖에 안 된 속기사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까지 속기사무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속기사로서의 자질 향상은, 먼저 본인뿐 아니라 속기사를 믿고 의뢰를 하는 민·형사상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즉 속기사가 속기만 하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속기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속기사를 준비하는 사람, 초보 속기사들이 더욱더 전문적인 속기사가 될 수 있도록 속기법 제정 및 관련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며, 많은 속기사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회의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mpossible is Nothing!!

| 류태문 |



선배님들의 합격수기를 읽어 보며 국회속기사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갔던 나도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된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아직도 지난 과거의 꿈이자 희망이었던 국회에서 속기사로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이 꿈만 같고 이 순간이 영광스럽다.

2006년 편입시험 합격의 기쁨도 잠시,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살 것인가, 전공은 나의 적성에 잘 맞나 하는 진로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 공무원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전공이 컴퓨터공학인 만큼 IT업체에 취업하게 되면 잦은 밤샘 작업으로 마누라는 바람나서 도망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은 악화돼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



는 불확실한 루머성 글을 읽어 보고 ‘이건 아니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산직 공무원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전산직 공무원 또한 일반 행정직에 비해 대우도 별로 못 받고 진급도 느리며 자칫 잘못하면 전산업무는 안 보고 우체국으로 발령이 나서 보험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루머성 글을 또 읽어 보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다.

그러던 중 N모 사이트를 통해 속기사란 직업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국회, 청와대, 법원, 의회 등 타이틀로만 봤을 때 으뜸이라 여겨질 정도의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이끌리기 시작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중 대우도 가장 좋고 진급도 가장 빠르며 현 속기사들의 체제가 잘 잡혀 있는 국회에 가고 싶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여러 정보를 알아본 후 첫 번째 난관이었던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기껏 대학 보내 놓고 비싼 돈 들여 가며 학원 보내서 편입까지 시켜 놨더니 전공은 때려치우고 생똥맛은 속기사가 되겠다고 하니 조금은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목표는 오로지 ‘국회’ 였다. 하지만 다른 속기사들도 많이 가고자 원하는 곳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남은 학업도 잘 마쳐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국회 필기시험도 전혀 생소했던 법 과목들이라 걱정이 많이 됐다.

우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바로 학원을 등록하고 연습에 매진했다. 기계를 사서 노트북과 기계를 항상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이 없는 공강시간에는 도서관 지하 맨 구석자리에 앉아 친구들은 토익공부를 하고 전공 공부를 할 때 나는 최대한 자판 소리가 적게 나도록 하면서 속기 연습을 했다. 그러다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는 식으로 매일 매

일을 보냈다.

그러나 학교생활과 병행하다 보니 친구들과 놀고 싶은 욕구, 잦은 술자리,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중간·기말시험 등 여러 핑계로 학원을 자주 빠지게 되었고 속기 연습도 소홀하게 됐다. 결국은 이듬해 5월 2·3급 국가시험 낙방! 여자친구와의 결별! 연타로 두들겨 맞으며 정신적 충격 및 고난의 길이 찾아왔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여름방학을 맞아 2주간 여행을 다니며 모든 근우와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리며 차츰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돌아온 후 오로지 속기에만 매진한 결과 9월 국가시험에서 2·3급 합격이라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자만한 나머지 ‘난 이제 다 배웠다. 혼자 독학하겠어.’라고 생각하고 학원을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또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한 달여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했다. 다음 해 국회시험이 있을지 확실치는 않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에 학원에 가서 연습하고 집에 와서도 연습을 했다. 그렇게 12월, 1월, 2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국회시험 공고는 나지 않았다. 2월 졸업을 한 후로는 마음이 더욱 다급해지기 시작하며 ‘이제 학생이 아닌 백수생활의 시작인데 국회공고가 안 나면 어떡하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갔다.

그러던 중 3월 말 드디어 국회시험 공고가 났다. 하지만 채용인원은 고작 3명 뿐! 나는 자신이 없었다. 1급 자격증도 없었고 필기공부 또한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지라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다 은연중 검찰에서도 4월쯤 7급으로 속기사를 대규모 채용할



예정이고 필기시험은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뽑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슬슬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다. 속기를 시작한 이유는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해서였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채용 인원도 고작 3명뿐이었다. 불가능해 보였다. 내가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해도 전국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3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검찰은 7급에 30여 명 채용 예정, 필기시험도 無……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마음먹고 국회를 포기한 채 오로지 혹시 모를 검찰시험에 대비해 속기만 하루 종일 붙잡고 연습에 몰두했다. 하지만 은연중 나왔던 검찰속기사 얘기는 점차 사그라지고 예정 공고일이었던 4월 말을 지나 어느덧 5월이 됐다. 이걸 아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싶었다.

다음날부터 바로 속기학원은 잠시 안녕, 아침부터 새벽까지 독서실에서 필기공부를 시작했다. 자신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하루 9~10개씩 동영상 강의를 보며 진도 나가기에 바빴다.

4월에 봤던 1급 국가시험에서 합격했다는 발표가 나고 조금씩 힘이 나기

시작했고 난 무조건 해낸다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 붙여 넣었다. 하루 공부를 마치고 고요한 새벽 귀갓길에 혼자 중얼거렸던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류태문,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



니까 하는 거지 못 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 겁먹지 마.’ 이 마음가짐 하나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게 해 줬던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내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합격 통지를 받은 후 필요한 서류 제출을 마치고 경위·사서·전산·통신직 동기들과 함께 3주간 국회법 및 여러 실무에 관한 지식과 스킬을 배우는 신입실무자 교육을 받았다. 교육 중 으뜸은 역시 해외연수, 우리는 해외연수로 말로만 듣고 TV나 사진으로만 봐 왔던 백두산 천지에 다녀왔다. 내 눈으로 직접 내려다 본 천지의 모습은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탄성만 나오게 할 뿐이었다. 3박 4일 동안의 중국 연수로 백두산 천지, 광개토태왕릉비, 누루하치 고궁 등 여러 유적지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기들과의 친분도 더욱 두터워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었다.

중국 연수를 끝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우리는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되고 본격적으로 실무에 투입되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던 터라 사무실에 오자마자 정신없이 바쁘다. 처음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는 엄숙한 분위기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록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이마에 구슬땀은 맺히고 그 땀이 눈에 들어가면서 눈은 점점 가까워질 뿐이고, 참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었다.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 어느덧 6개월, 그동안 결산, 국정감사, 예산, 법안, 4개의 큰 언덕을 넘어 왔다. 예산과 각종 쟁점법안 처리 회의를 하면서 밤도 새워 봤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기록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으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는구나’라는 자긍심을 느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앞으로 이곳에서 또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지 많이 기대가 된다. 분명히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찾아오겠지만 2007년 여름,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에 독서실 앞 벤치에 앉아 담배와 담소를 나눌 정도로 지독한 외로움을 견뎌 가며 마음속에 품었던 국회속기사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생각하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깨끗하게 속기사로서의 자긍심을 키워 나가고 싶다.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1등 신랑감이다!

| 주호근 |



학창시절 나는 참 평범한 학생이었다.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고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내가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색다른 일을 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자신도 그냥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해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평범한 샐러리맨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 특히 남자로서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속기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특별하게 고민하거나 큰 결심을 한 건 아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원래 내가 가야 할 길인 양 자연스럽게 지나온 것 같다. 허나 대학을 중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2년 2개월간의 방위산업체 근무를 마친 2006년 6월, 나는 여러 길을 두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산업체에서 일을 더 할까? 아니면 복학을 할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볼까? 일단 내 선택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지 않았고 집에서도 말하기를 ‘뭘 하든 상관 없는데 일단 대학은 졸업하고 해라’ 였다.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 대형 문구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속기와의 인연은 거기서 시작됐다.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한 명이 속기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나는 뭔가 배우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그 누나와 함께 속기학원을 등록하게 됐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기를 배우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정보 수집도 하고 심사숙고 끝에 시작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속기를 배울 때도 여러 고민 끝에 굳은 결심을 하고 배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원에 등록하게 됐고 배우다 보니 내 적성에 맞았고 막연히 ‘국회속기사가 되면 정말 인생 피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정말로 내가 국회



에 들어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국회는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닌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속기는 내 적성에도 맞았

고 내 길인가도 싶었지만 ‘내년에는 대학을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 뒤를 짹짹하게 했다. 그러나 다행히(?)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대학을 갈 수 없었고 나는 더욱더 속기에 내 모든 열정을 투입할 수 있었다.

직장이 선릉에 있었던지라 끝나고 학원을 가도 많이 해 봤자 두 시간, 학원 마치고 집에 오면 12시, 그때서야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잠을 청하는 그런 생활을 8개월간이나 했다. 그렇게 공부하고 처음 치른 자격증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방.

거기서 충격을 받지 않는 않았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준비기간도 짧았고 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나는 속기사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속기에 전념했다. 그러나 2개월 후 자막방송 시험에서 보기 좋게 또 낙방!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나는 그때부터 국회의 꿈을 품기 시작했다. ‘감히 나를 떨어뜨려. 두고 보자’라는 독기를 품었고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준비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내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치른 두 번의 자격증 시험에서 모두 합격, 국회 필기시험 합격, 국회 실기시험 합격, 면접까지 붙으면서 드디어 국회속기사가 된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 역시 국회에만 들어오면 모든 게 끝인 줄로만 알았다. ‘국회 들어올 정도의 속기 실력이면 일에는 어려움이 없겠지’ 했던 나의 생각은 여지없이 틀리고 말았다.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배운 교육과 현장에서 속기하는 것은 전혀 판판이었다. 한 사람이 죽 말해 주는 것도, 정확한 발음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발언자 체크하랴 자



료 보면서 속기하라, 위원장을 등지고 앉았는데 사회자가 조용히 바뀌어 버리길라도 하는 때는…… 어휴~ 정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띄어쓰기 하나, 쉼표 하나, 문단 바꾸기 하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하나의 회의록을 완성하신다. 또 실무 속기사가 작성한 원고는 편집 선배님과 계장님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완성이 된다. 회의록이 작성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나니까 속기를 쉽게 본 나 자신이 한심스러웠고 선배님들께 죄송하기까지 했다.



어머니와 함께

부서에 배치 받고 한 달여 만에 국정감사를 가게 됐다. 아직 사무실에서도 어리보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속기를 하려니, 그것도 기계도 설치해야 되고 녹음도 따야 되고…… 처음에는 겁부터 났다.

그러나 선배님들의 친절함 지도 아래 나는 하나하나 배워 갔고 점점 그 분위기에 젖어들어 갔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갔고 국정감사가 끝나갈 무렵 부모님이 계시는 대구의 경상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됐다.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시면 안 되는 자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선

배남들의 배려로 어머니는 오셨고 의원님들 뒤쪽에 마련된 보좌관 자리에 앉아서 아들이 회의장 한 가운데서 속기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셨다. 대학을 관두고 속을 썩인 아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속기하는 중에 그 모습을 본 나도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국회속기사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훌륭한 속기사가 되어야겠다고.

요즘 같은 불경기와 취업대란 속에서 당당히 국회속기공무원으로 취업했다는 것, 그리고 뉴스에서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인다는니 구조조정을 한다는니 그런 뉴스를 볼 때면 입가에 '므흣' 한 미소를 머금곤 한다. 대학을 포기했다고 속 태우신 부모님께 이제는 떳떳하게 대할 수 있다.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안 가는 거면 내가 대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내 자존심을 구긴 외삼촌과 외할머니 앞에도 당당히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1등 신랑감이니까. ^^





새, 둥지 옮기다.

| 홍미지 |



새내기 수기를 써 달라는 원고를 부탁받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처음엔 많이 난감했다. 속기를 공부하면서 몇몇 선배님들의 수기를 읽어 보았다. 나도 국회에 입사하게 되면 쓰게 되리라는 생각에 자격증 공부를 하며, 경력을 쌓으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중에 국회에 입사해서 수기 쓸 때 에피소드로 넣어 보상받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의 일들을 떠올려 보려 해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다행인 거겠지?!^^;; 그래서 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합격수기보다는 영동군의회에서의 이야기와 국회 새내기 생활을 적어 보려 한다.

나는 어떤 연유로 속기사를 내 천직으로 선택하게 되었을까? ‘속기’란 것을 길을 가다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갖고 있으면 유용한 자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경제 한파에 밀려 탄 자격증도 아니다. 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 속기사를 알게 되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매력에 내 눈에 콩깍지를 씌웠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속기를 시작했을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매력엔 빠졌지만 속기에 대한 애정은 없었다. 그런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속기가 힘들지만 대단히 재밌는 일이란 걸 알았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속기사 흥미지’란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는 정확하고 생생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자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하게 되었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겠지만 나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국회에 입사한다’는 꿈을 품었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는지 낙방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국회만 바라보고 공부했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학원 원장님의 권유로 속기강의를 시작했다. 강의를 하면서 틈틈이 속기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일을 했다. 이때 다양한 환경에서 속기를 하다 보니 재밌는 일도 많았고,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하우도 익혔다.

이렇게 1년여 일을 하다 보니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회의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영동군 의회에서 공고가 났고, 이 공고를 보기 전까지 영동군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했던 나는 운명처럼 지원을 했고 입사하게 되었다.

참고로 영동군(永同郡)은 충청북도 최남단에 있으며 동쪽은 경상북도 김천시·상주시, 서쪽은 충청남도 금산군, 남쪽은 전라북도 무주군, 북쪽은 옥천군과 접해 있다. 서울과의 거리는 193.8km이다. 꽃감과 포도가 유명하다.

국회에 입사했을 때도 정기회가 시작되어 한창 바쁠 때였는데, 공교롭게도 영동군의회에서도 입사하자마자 정례회를 치렀었다. 정례회는 국회의 정기회와 같은 것으로 지방의회도 이 기간이 가장 바쁘다. 정례회는 1년에 두 차례 열린다. 1차 정례회는 7월경 상반기 업무보고 위주로 열리고, 2차 정례회는 11월에서 12월에 걸쳐 한 달간 열린다. 그중 이 2차 정례회가 국회 정기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입사 후 제대로 분위기 파악도 안 된 상태에다가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회의장에서 정신없이 한 달을 보내고 나서야 조금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정례회를 치르고 나니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회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영동군은 소규모 지방의회라서 속기사는 단 2명뿐이다. 그러다 보니 회의가 많을 때는 지금 국회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원고를 작성하기도 했다. 속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0분씩 교대로 속기

를 했지만 2명이 번갈아 하는 것이기에 회의장을 나가지 못하고 속기석에 앉아 쉴 수밖에 없다. 특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1주일을 하고 나면 회의장에서 떨미가 날 정도가 된다.

회의록 배부 기한도 있다. 회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완성되어 결재를 받고 배부가 되어야 한다. 정례회가 끝나면 한 달간 꼬박 쌓아둔 많은 양의 원고를 검토에 검토를 거쳐 완성한 다음 결재를 받고 인쇄소에서 회의록이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처음으로 내가 작성한 두툼한 회의록이 딱딱딱하게 인쇄되어 왔을 때는 뭔가 해낸 듯한 기분이었다.

영동군의회는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곳이다. 혼자만 일을 하다가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이 힘든 것이면서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 다른 직책, 다른 나이,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쯤에서 국회에서의 새내기 생활도 한번 돌아봐야겠지?!

2008년 3월 봄기운이 파릇파릇 돌아나기 시작할 때쯤 나의 봄나들이를 포기하게 만든 국회 속기직 공고가 났다. 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세 차례의 시험을 거치고 최종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까지의 그 떨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국회에 입사하고 3주간의 신입실무자교육을 마친 뒤 의정기록2과2계에 내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 정기회 기간이라서 국회는 한창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던 때였다. 처음 회의장에 들어가던 날, 방 배



정을 받고 인사를 하자마자 주무님은 분위기를 익히라며 나를 회의장으로 데리고 가셨다. 부랴부랴 제복을 갈아입고 주무님 뒤를 따라 회의장을 들어섰다. 몇 년을 회의장에 있었던 나인데, 행안위 회의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내 심장은 쿵쿵 뛰었다. 처음 해 보는 것도 아닌데 속기를 하는 내내 얼굴은 빨개져 있었고 시선은 어디에 뒹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바라보았다. 의원들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어찌나 어려웠던지.

한 달간 주무님을 따라다니며 회의장이 익숙해질 때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더구나 내 시간이 처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많이 떨리고 흥미로웠다. 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팀에 배정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는 행운도 얻었다. 무거운 속기 기계를 들고 이동을 해야 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못 가 봤던 지방을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었다. 그중에서도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대전시는 나의 20대를 보냈던 곳이었고 국회의 꿈을 품게 했던 곳이기에 이렇게 꿈을 이뤄 국회속기사로 이곳에 감사를 하러 왔다는 기쁨이 컸다. 감사가 끝나자마자 광주로의 이동 일정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서인지 내년에도 대전으로 국감을 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 본다.

제주도 국감을 끝내고 선배님들과 하루의 제주투어를 갖게 된 것은 첫 국감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후배를 데리고 출장 다니시



느라 더 힘드셨을 텐데도 항상 웃으며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국정감사를 마칠 수 있었다.

속기란 것은 참 어렵다. 처음 속기를 시작했을 땐 자격증만 취득하면 속기에 통달할 줄로만 알았다. 자격증을 따고 나자 이제야 시작이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학원과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속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만했다. 그러나 국회에 입사해 한 달간의 국정감사를 다녀와서 정기회를 마치고 세 번의 임시회를 마친 지금, 난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절감한다.

나는 영동에서도, 국회에서도 계속 막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막내라서 많은 꿈을 꿀 수 있고 앞으로 벌어질 국회에서의 다이내믹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어 좋다. 일이 많고 몹쓸 상황에서 속기를 할 때면 지치기도 하지만 아직은 재미있고 모든 게 신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난 너무 행복하다. 누군가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를 꿈꾸며 열심히 속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처음 속기를 시작해서 국회입사의 꿈을 품었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속기사가 돼야지! 대한민국국회 속기사 홍미지 파이팅!!





금.낭.화.길을 추억하며

| 김란희 |

국회사무처 속기과에서 ‘파견’이란 제도는 낯설기만 했으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성사되어 2007년부터 국립국어원 파견 근무가 시작되었다.

첫 파견자로서 이순영 서기관님이 가시게 되었다. 무슨 일이든 맨 처음 접할 때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 아닐까, 그러기에 사실 선뜻 나설 수 없는 면도 있었겠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기에 새삼 감사히 여겨진다.

나의 경우는 근무 환경적인 면에서나 기타 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의 두 번째 파견이었기에 조금은 가벼운 심정으로 나설 수 있었다.

사실 두 번째 파견자로 신청을 하긴 했으나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 사정이 감안되어 나로 낙점되었을 때 세상 모든 일에서 우리가 예단했던 것처럼 되지 않음이 삶의 묘미가 아닌가도 싶었다.

드디어 인사명령을 받고 첫 출근, 신입직원이 따로 없었다. 국립국어원 각 부서를 돌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으로 구성된 기획관리과 사무관의 소개와 함께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파견 온 김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말을 건네니 처음 입사 때를 추억케 했다.

다음날 출근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얼굴들과 시선들이 나쁘지 않았다. 오랜 동안 의사당 내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나를 다 드러내 놓고 다니는 듯한 심정이었다. 상대방이 누구든 언제 어디서인지 모르나 나를 보고 알고 있는지 모른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곳서는 그런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랄까, 아무튼 서로가 낯섦이 좋았다.

그 기분은 내가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나만이 그들을 보고 그들은 나를 못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으나 그것을 즐기기도 잠시 어딜 가나 사람 관계란 맺어지게 마련이기에 인사와 함께 짙막한 대화가 자리 잡게 되자 투명인간으로서의 나의 기쁨은 곧 사라졌다.

국립국어원 3층 306호, 개인사무실(?)에서의 생활은 기본적인 살림살이 몇 가지를 나르고 진용이 갖춰지자 기분 좋은 흥분이 즐거웠다. 나 혼자만의 공간, 비록 그것이 자료실 한 쪽을 비워 꾸민 것이지만 넓은 창문이 있어 답답하지 않고 게다가 개화산 자락이 훤히 보여 사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 옆 자리에 아무도 없이 종일 혼자 지내야 하는 적막함 속에서도 뭔가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어느 분은 대화에 굶주릴 것을 염려하시기도

했으나 그동안 넘치는 말들 속에서 지낸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마땅할 것 같았다.

그리고 매일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평일 낮 동네 풍경을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았다. 남녀노소, 여러 모습의 군상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물건 파는 아저씨 목소리, 요즘은 아가씨 목소리까지 심심찮게 들리니 그것도 바뀐 세태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았고 유아원에 보내기 위해 배웅하는 젊은 엄마들, 등하포켓길의 초중등 학생들의 재잘거림, ‘아! 이것이 한낮의 동네 풍경이었구나’ 이렇듯 잊고 있었던 모습들도 큰 기쁨이 되곤 했다.

그리고 옆방 이민정 님과 이웃사촌으로 복사나 팩스 등 나름 신세도 지고 차 한 잔 나누며 이런저런 정담을 나누었는데 그분들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인사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짐 싸서 어디로든 가야 하기에 근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같을 수 없었다. 우리처럼 긴긴 시간 함께 웃고 울면서 미운 정 고운 정 깊게 들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으나 바로 옆에서 바라보니 우리 과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행운으로 감사와 보답의 마음이 컸다.

한편 파견이 결정되었을 때 그 기간을 잘 활용해 보라는 충고의 말씀들도 있었으나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주어진 시간의 여유로움을 있는 그대로 누리며 앞으로의 근무에 마지막 정열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로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파견기간 동안 그 목적에 맞는 과제가 있어야 함은 피 파견기관이

나 파견자나 마찬가지로, 기획관리과 쪽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회의록과 한글맞춤법에 연관된 과제를 주문했고 그에 따라 맞춤법 체계에 따라 형태,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 분야별로 나누어 연구해 보려고 했으나 제대로 된 결과물을 생산하지 못한 채 복귀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과 함께 후임인 조영기 서기관님께 빚을 진 듯해 마음이 무겁다.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복귀 시점이 성큼 다가왔다. 겁이 났다고 할까, 돌이켜보니 그 무서운(?) 278회 정기국회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제삼자적 느낌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었음에 스스로 놀라며 일단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피부에 와 닿는 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드디어 복귀 날짜가 코앞에 잡히자 1년 전 그 낯설음이 똑같이 느껴졌다. 업무에 대한 탄성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아침 이른 시간에 맞춰 일어날 수 있을까, 속기집무관은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등등 자질구레한 것에 대한 노파심까지 밀려왔고 파견을 떠날 때 ‘내 자리도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라는 후배의 말도 생각났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럴 수 없음이 송구할 따름이었다.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답다고들 한다. 나의 경우는 거기에 더해 좀더 시간에 충실할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으나 틀에 박힌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로움 속에서 보낸 시간들이 확대재생산의 밑거름이 되어 오늘 또 내일, 그리고 매일 매일을 새롭게 보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의 일생을 통해 최고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과장님 이하 선·후배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우샘프턴에서

| 김정아 |

안녕하세요?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에서 영국의 사우샘프턴(Southampton)이라는 곳으로 건너온 지도 벌써 9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으면서도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들, 후배들 모두 많이 보고 싶네요.

아무것도 없던 텅 빈 공간에 하나둘씩 필요한 것들을 세팅하는 데 6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이제 이곳을 떠나갈 때 즈음 하나둘씩 없애는 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적응 중인지라 영국 사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는 못하는 상태지만 제가 짧은 시간 생활하면서 겪고 느끼고 있는 소소한 차이점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곳 사우샘프턴은 저도 도착하기 전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저 런던의 남동쪽에 있는 인구 40만 정도의 작은 도시라는 것 외에는.

이곳은 런던의 외항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영국 제1의 여객항이었다고 합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가 신대륙 미국으로 가서 새 삶을 일구고자 하는 사람들을 싣고 떠나갔던 항구 도시라는군요. 그리고 1912년에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출발했던 곳이기도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던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 도시의 대부분이 폭격을 당해서 파괴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는 것 중에 “히틀러는 사우샘프턴을 미워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오래된 시설은 도시를 둘러쌌던 성문 일부와 성벽 그리고 몇 채의 건물뿐이라고 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을 사랑하는 영국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곳 사람들은 그래서 사우샘프턴을 “호러블(horrible)한 도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겪고 현대적인 건물들로

새롭게 건설된 서울의 모습을 보고 영국 사람들은 감탄만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우리나라가 어떤 관광 상품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끌 수 있을까라는 주제넘은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학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R학년과 1학년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초등 2학년부터 6학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세컨더리 스쿨,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컬리지가 있습니다. 이 컬리지는 대학교의 각 단과 대학을 의미하는 컬리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지만 이곳의 컬리지 학생들은 학교에 자동차를 가지고 등하교를 할 수 있고 화장과 이성교제가 자유로운 등 우리나라의 대학생들과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교복

유치원생과 같은 어린 아기들부터 세컨더리 스쿨의 학생들이 모두 교복을 착용하고 다니는데요, 바지와 속에 입는 폴로 셔츠는 거의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동일해서 마트나 옷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티셔츠와 같은 겉옷에 학교 마크를 찍어서 그것만 학교별로 다르게 입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1년 내

내 입다 보니 아이들 옷값이 별로 들지 않더군요. 추울 때는 겹에 점퍼만 하나 더 입고 더울 때는 박스 셔츠만 벗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곳 날씨가 하루에도 열두 번씩 바뀌다 보니 여름에도 파카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울에도 맨발에 샌들을 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옷을 일년 내내 입게 되는 셈이지요. 계절에 따라 입는다고보다는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 옷을 입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사람들이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는 모습이 신기했는데요, 비가 오면서 바람이 돌풍처럼 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튼튼한 우산이라도 뒤집어져 버리거나 살이 부러져 버려서 우산을 쓰기가 불편하더군요. 대신 방수가 잘 되는 모자 달린 옷을 입고 다니다가 모자를 쓰면 끝입니다. 비가 와도 뛰거나 피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차가운 빵조각을 씹으며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봤다면 아마 굉장히 처량하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곳 사람들은 아주 일상화된 모습입니다. 저도 우산을 안 쓰냐고요? 아니요, 저는 살이 휘어지고 부러져도 열심히 쓰고 다닙니다.



라운드어바웃(Roundabout)

그리고 이곳에 와서 참 신기했던 것이 라운드어바웃(Roundabout)이라는 교통 시스템입니다.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등 길이 여러 개 만나는 곳에 동그라미를 바닥에 그려 놓거나 화단 같은 것

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신호등도 없이 차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자기 차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차가 있으면 그 차에게 지나갈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차량이 진입하지 않으면 자신의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아주 복잡한 길에서 서로 눈치만으로 운전을 하는데도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등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 그리고 전기세와 같은 비용이 많이 절약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를 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운드어바웃을 통해서 우회전, 좌회전, 유턴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라운드어바웃으로 다시 한바퀴 돌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일방통행만이 가능한데요, 이곳은 고속도로에도 라운드어바웃이 있어서 방향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살이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있는 라운드어바웃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붓세일(car boots sale)

또 하나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는데요. 영국에는 카붓세일(car boots sa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가라지 세일(garage sale)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트렁크를 카붓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자신이 쓰다가 필요 없어진 물건들을 싣고 나와 넓은 공터에서 파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세 가지 정도의 중고 물건을 파는 곳이 있는데요, 체리티숍(charity shop), 카붓세일, 덤프(dump)라는 곳입니다. 체리티숍은 상설 가게들로서 영국의 모든 도시 다운타운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고 어느 도시에 가든 똑같은 상호를 걸고 가게를 운영합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주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분류하고 정리하고 손질을 해서 판매하는 일까지 맡아서 합니다. 카붓세일은 개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들고 나오거나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와서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덤프는 말하자면 재활용쓰레기나 다른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곳인데요, 이곳에 갖다 버리는 물건 중에 쓸만한 물건들을 분류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물건이 꼭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재미 삼아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의 모든 물건들을 이런 곳들을 통해서 조달했는데요, 가끔 아주 좋은 물건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성격이 검소하고 아끼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문화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물가가 비싸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2000원에 해당하는 물건값을 붙이고 비

바람을 맞으면서 온 가족이 나와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꼭 돈 때문에 카
붓세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경제 개념을 가르
쳐 준다거나 돈의 소중함, 물건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정신 등을 가르치려고
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소소하게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국의 다른 모습들을 말씀드
렸는데요,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음을 이해
해 주세요.

요즘 영국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인지 파운드랜드라는 1
파운드 가게가 성업 중이고 프리막스라는 아주 저가의 옷이나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인
터넷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으면 조국이 더 잘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이곳에 나
와서 항상 한국의 정치, 경제 뉴스에 귀 기울이게 되더군요. 우리나라의 정
치,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좋겠다는 기원을 해 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시 뵙는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초등학교 시절,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곧장 달려와서는 TV를 켭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머즈’가 방송되는 시간입니다. ‘소머즈’에는 예쁜 여자 주인공이 매 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게다가 누구도 갖지 못한 바이오닉 파워(bionic power)로 어려운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벨리댄스(bellydance)라는 것을 본 것도 이 드라마 안에서였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제목이 ‘왕과 제이미’였던 것 같은데 중동 어느 나라의 재벌이 악한 계략을 꾸며 원유가격을 올리고 왕을 살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이미가 몰래 벨리댄서로 위장하여 그 나라 궁

에 숨어들어가 왕을 구하고 평화를 이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간에 제이미가 직접 화려한 벨리댄스를 추는 장면이 너무나 신기했고, 마지막 부분에서 심한 남존여비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왕이 자신을 구해 준 제이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비로소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던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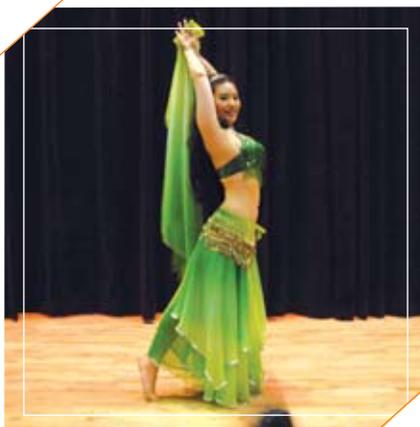
그 후로도 계속 벨리댄스는 가끔 TV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낯선 춤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도 벨리댄스를 하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던 중에 벨리댄스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한 두 달 정도 해 보자고 시작했는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학원에 갔을 때는 워낙 신체노출이 많은 화려한 복장으로 추는 춤이라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국적인 음악도 어색하고 기본자세나 안무가 춤이라기보다는 무용에 가까워서 어렵기도 했습니다. 묘한 느낌의 동작들이 가슴 속에서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듯한데 내 몸은 신비한 그 느낌에 다가가지 못하고 몸부림을 하고 있자니 참 우습기도 하고 앞에서 시범을 하는 선생님의 육감적인 몸매도 몹시 부담스럽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내다 보니 골반에 맨 힙스카프에서 나는 찰랑찰랑 소리가 요란하다기보다 경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다 보니 벨리댄스의 동작은 보기에는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복잡한 스텝이 없고 열두 가지 정도의 기본동작들이 반복되고 서로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춤이라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벨리댄스라고 하면 흔히들 가슴이나 엉덩이를 떠는 슈미(shimmy)동작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벨리댄스의 기본은 ‘분리’입니다. 머리와 상체의 분리, 상체와 하체 분리, 어깨와 가슴의 분리, 허리와 엉덩이의 분리 이렇게 몸의 각 부분이 제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벨리댄스의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거기에 섬세한 팔동작과 손동작, 벨리롤(belly roll)이라고 부르는 허리와 배의 S자 움직임이 더해져서 여체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데 보는 이의 눈을 빼앗을 정도로 현란하지만 그냥 몸을 리듬과 본능에 자유롭게 맡기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앞에 얘기했던 드라마 ‘소머즈’ 중의 한 대사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제이미가 벨리댄서로 위장하기는 했지만 춤을 추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체를 눈치 챈 왕의 아들이 난처해하는 제이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벨리댄스를 출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바로 벨리댄스와 다이어트의 상관관계일 텐데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벨리댄스는 그 이름처럼 허리와 복부를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옆구리 라인이 매끈해지고 배에 약간의 근육이 잡히는 효과, 무릎을 조금 구부린 채로 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는 줄어들지 않지만 몸이 균형 있고 건강하게 보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성의 몸에 맞게 디자인된 춤이라 골반근육을 강화시키고 자궁을 튼튼하게 해서 임신과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허리의 마디마디를 펴고 움직이면서 몸의 부분들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몸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골반을 좌우 앞뒤 위아래로 움직이는 쉬미(shimmy)동작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복부 부위의 근육을 많이 쓰게 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서 숙기를 하는 저에게 참 좋은 춤입니다. 실제로 미국 등지에서는 벨리댄스가 ‘춤추는 요가’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제법 꾸물꾸물 골반을 돌리기도 하고 탁탁 튕기는 것도 힘이 붙고 벨리댄스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상·하체 분리가 자유워졌을 때부터 처음에 단순히 운동으로 시작한 이 춤에 슬슬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전, 어설픈 실력이지만 무대에 설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공연을 준비하느라 좀더 체계적으로 안무와 정확한 동작을 연습하다 보니 점점 더 매력이 느껴지고, 이제는 공연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큰 공연이 있었는데 일반 작품들뿐 아니라 특별히 오프닝과 클로징 작품에도 참여했습니다. 안무를 짜는 일에서부터 의상과 분장 등을 다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이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벨리댄스를 하신 공연단장님과 강사로 일하시는 여러 분들과 한 팀

으로 같은 무대에서 춤을 춘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는데 모두들 재미있게 봐 주시고 특히 부모님은 딸이 무대 위에서 활짝 웃으며 춤추는 모습이 보기 좋으셨는지 역시 우리 딸 제일 예뻐다고



하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 운동회 날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에 가슴 속에서 뭔가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벨리댄스의 기원은 중동지방이지만 이것이 전파되면서 각 나라마다 독특한 개성으로 다른 스타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커집니다. 우아하다는 러시아스타일 벨리댄스도 해 보고 싶고 어깨와 팔, 손에 아름다움이 흐른다는 이집트스타일 벨리댄스도 궁금합니다. 더 큰 무대에도 서 보고 싶고 또 해외의 유명한 벨리댄서들을 직접 가서 보고 싶기도 합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내가 직접 짠 솔로작품을 공연하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벨리댄스는 요즘 제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 벨리댄스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사라지고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성만이 표현할 수 있는 춤의 동작들을 하다 보면 마음이 선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거울 속의 내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춤추는 내 모습이 스스로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 특별하지 않은 외모, 현실 속에서는 그다지 내세울 것 없지만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웬지 우울하고 생활이 지루하신 분이 계시다면 벨리댄스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꼭 벨리댄스가 아니어도 좋지요. 어떤 춤이든 좋아요. 리듬과 몸이 하나가 될 때의 기분 좋은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진민이에게

| 정 숙 |

2007. 3. 2. AM 7:45

다른 아이처럼 “응~애” 소리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 너……

양수를 먹어서 시원스럽게 울지도 못하고 객객하는 너를 처음 보았을 때
엄마는 미안함과 걱정스러움에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했다.
다행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2박 3일 동안 너는 여느 아이처럼 관찮아졌고
엄마와의 동거도 시작되었지.

퇴원하는 날 처음 안아 본 네가 어찌나 작고 가볍던지…… 떨어뜨릴까
봐, 다칠까 봐 조심스러워하며 너를 품에 안았는데…… 사실 엄마는 처음
갓난아이를 안아 보는 거라서 설레고 떨렸단다.

그 이후 나 하나만으로도 벅찬 하루하루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들더구나. 건강 하면 자신 있던 엄마였는데 잠을 설치며 수유를 하고 팔이 아픈데도 계속 안아 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건디기가 힘들어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더랬지.

그래도 그런 힘든 상황을 다 견디게 해 준 건 너의 밝고 해맑은 웃음이란 다. 조그마한 몸에서 나오는 손짓·발짓·눈짓... 나중에 네가 크면 보여줄 테니 한번 보렴. 그때는 너도 ‘애가 나였어?’ 하면서 깨물어 주고 싶어질 거야. 제발 안 닳기를 바랐던 엄마의 코를 그대로 닳은 너의 코가 웃을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며 찡긋거리면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면서도 ‘전체적으로 예쁘니까 봐 줄 만은 하네’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달래곤 했었지.



어느 날 침대 위에 누워 뒤집으려고 킁킁거리는 너를 보며 도와주는 커녕 기념되는 순간을 찍으려고 카메라부터 찾던 이 엄마, 네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기어 다니며 손에 뭐든 잡히면 입에 넣는 너에게 지저분한 물건을 입에 넣으면 배탈 날 수 있다, 그렇게 아무거나 입에 넣으면 어떻게 하나며 너를 이해시키려는 이 엄마, 지금 내가 생각해도 웃기는구나.

아무것도 잡지 않고 혼자 일어난 날은 우리 집이 아닌 할아버지·할머니

택에 있을 때였지. 아마도 뭐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지켜보셨던 할아버지의 훈련 덕분에 아니었나 싶구나.. ^^ 첫걸음을 내디딜 때는 금방 걸을 것 같았는데 한두 걸음 떼고 주저앉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가는 걸 보고 주위에서 겁이 많은 아빠를 닮았다고 했지. 네 아빠도 그건 인정을 하더구나. ㅋㅋ 네 아빠는 뭐든 닮았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미소가 한 가득이니 네가 커서 어른이 되어도 지금처럼 아이라고 생각하고 유리 다루듯이 키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돌이 지나고 나니 제법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지고 해서 계속 밖으로 나가자고 졸라서 엄마·아빠가 고생 좀 한 거 알고 있지?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없이 나가지만 비가 오거나 쌀쌀할 때는 곤란한데, 네가 그걸 알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말귀 알아듣고 행동하는 너를 볼 때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야단칠 때 이해가 되게 설명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주머니가 봐주실 때는 아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사정상 어린이집에 보낸 이후부터 너무 자주 아팠던 너, 아파도 아무 말 못 하고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너를 볼 때면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단다. 아픈 너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어린이집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가기도 하고 울던 네 모습에 가슴이 너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출근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의젓할 정도로 훌쩍 커버린 네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엄마가 고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엄마, 같이……” 하며 졸졸 따라다니고 “엄마·아빠 딸” 하며 우리에게

웃음을 주며 “따라해”라는 말과 함께 안아 주는 네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 알고 있니? 이제는 엄마 말도 이해하고 아프다고 하면 “호~~” “झे~~” 하며 아픈 곳 치료까지 해 주는 너를 엄마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하루가 다르게 커 가는 너를 보면서 세월이 가는구나 하고 느끼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 사라진 듯 보이는 엄마의 여유와 생활도 찾게 되겠지. 가끔 우울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진민이가 어떻게 알고 위로를 해 주는지.. 기특할 따름이란다.

진민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이 선물을 아주 귀하게 여겨 행복 속에서 자라게 해 주고 싶구나.

너무나 많이 부족한 엄마지만,

네가 힘들고 지칠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편한 나무가 되어 줄 테니 마음껏 네 꿈을 펼쳐 나가려무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국회사무처 견학기

| 다음카페 속기마당 |

1. 다음카페 속기마당 소개

우리 카페는 2000년 8월 7일,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에서 속기정보가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정보와 속기를 배우는 초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속기사의 위상 제고에도 힘을 보태고자 출범(카페지기 : 이철호)하여 3월 현재 가입회원 2만 800여 명, 하루 방문자 수는 대략 1000여 명이 넘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온라인속기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09년 1월 1일부로 정상덕 회원이 새로운 운영진으로 합류되면서 일부 카페규칙의 개정을 통해 속기의 저변을 넓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1차 사업으로 '국회 견학'을 하게 되었다.

2. 견학 과정

지난 1월 14일에 국회 견학과 관련한 회원참가 공지 후 신청을 받은 결과 3월 3일 35명의 회원 신청자가 확정되어, 3월 13일 오후 2시에 대부분 속기사 지망생들로 이루어진 31명의 카페 회원들의 국회 견학이 실시되었다.

속기마당 회원 27명과 운영진 4명 등 31명은 지난 3월 13일 경위과 직원의 안내로 국회의사당을 둘러보고 난 후 국회의 선배 속기사들에게 속기과 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은 2009년 새롭게 태어난 ‘속기마당’에서 마련한 첫 번째 이벤트인 속기현장 견학의 첫 코스였다. 향후 견학 코스로는 자막방송, 법원, 교육기관, 지방의회, 속기사사무소 등이 예정되어 있다.

3월 13일 오전에는 비가 내렸으나 다행히 약속 시간인 오후 1시 30분 전 후에는 비가 그쳤다. 찬 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 속에 회원들이 속속 국회 정문 앞에 모여들었다. 모두 27명.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이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먼저 온 초등학생들과 함께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등 기본 견학코스를 마친 후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선배 속기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다.

국회 의정기록1과 이경식 과장은 환영 인사를 한 후 속기사 124명이 국회 본회의와 17개 상임위의 회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속기가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대단히 활성화되었으며 속기사들의 속기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무척 강하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컴퓨터속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발전한 점을 꼽았으며 컴퓨터속기가

발전하게 된 것은 한글의 우수성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식 과장은 매년 약간명씩 신입 속기사를 선발하고 있으며 작년 채용 시험에서는 면접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1차 필기시험에서 3배수를 뽑고 2차 실기 시험에서 1.5배수를 뽑아 3차 면접에서 최종 선발하는데 면접 시 1, 2차 시험 성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 채용계획을 묻는 회원들의 질문에 국회 의정기록 1과 이동준 속기사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로 매년 3명 정도씩은 뽑지 않겠느냐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채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면접 준비 요령으로 6개월 이상 신문 정독을 권했으며 국회 홈페이지에 들러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격자 3명 중 1명인 류태문 속기사는 합격 비결을 묻는 회원들의 질문에 '그냥 열심히 했다' 며 '국회에 오고 싶다는 욕심만 많이 가지면 합격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 1급은 따야 한다고 말한 그는 분당 340~350자의 실력이라고. 또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질문에는 '술로 이겨냈다' 고 웃으며 답했다. 또 국회에서 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속기사 중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도 전체 속기사 124명 중 90%가 여성이다. 이날 참석한 회원 대다수도 여성이었다. 여성 회원들의 요청으로 업무 중 끝나온(?) 권초롱 속기사는 2004년 국회에 들어오기 전 속기사사무소에서 회의 속기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준비된' 속기사였으며 "8, 9개월 만에 속기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말은 오만이다. 270~300자에서 대부분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며 슬럼프가 오면 조금해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며 천천히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초롱 속기사는 99년에 학원에서 속기를 배우기 시작하여 1급 자격증을 따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고. 또 국회시험에 합격하기까지 1년 동안 공부했다는 그녀는 “속기사의 기본은 속기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라고 강조했다.

선배 속기사들과의 대화 시간이 끝난 후 회원들은 환경노동위 속기석에



견학생 속기 체험

앉아 사진 촬영을 하며 빨리 이 자리에 정식으로 앉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후 의정기록과를 돌면서 선배 속기사들의 업무 현장을 지켜보았다. 회의가 없는 시기여서 평소처럼 분주하지는 않았다.

3. 견학 후기

견학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는 인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회원들은 대체로 이번 국회 견학에 만족하는 모습이였다.

부부가 함께 참석한 아이디 ‘ksh1356’님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운영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회 속기사를 목표로 속기 공부 중인 Broken-Voice님은 “국회에 들어

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일하는 곳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춘천에서 온 ‘지금 이 순간’님은 “요즘 들어 마음잡기 어려웠는데 국회 견학을 통해 다시금 각오를 다지게 됐다”며 뒤풀이 시간에도 회원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밝혔다.

‘파이팅’님은 이번 국회 견학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며 제일 유익했던 시간으로 국회 선배 속기사들과의 대화를 꼽았다. 또 다른 회원들과 운영진과의 대화에서도 좋은 정보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7일간의 프랑스 여행기

| 황유진 |

내 마음의 오아시스처럼 심신이 피로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여행에서의 추억이다. 힘든 정기국회 때라도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 어느덧 마음이 평온해져 온다.

한편으로는 여행의 기억이 먼 옛날의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때의 사진을 보면 ‘아, 이런 때도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08년 전반기는 우리에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방학이었다. 바로

총선이 있는 해였기 때문이다. 보통 총선을 치르고 난 후부터 다음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겐 방학이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은 달랐다. 동기들과 함께 단기 자율훈련 신청을 했지만 느닷없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일정이 잡혀진 것이었다. 단기자율훈련을 2년 동안 기다려온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다행히도 우리 계획보다 일주일 늦게 연수를 떠날 수 있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결정해야 했던 건 어떤 나라에 얼마만큼 머무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모든 팀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 많은 나라에 가기보단 한 나라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나라가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다.

그래도 영국보단 프랑스에서의 일정이 훨씬 더 길었기에 조금이라도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프랑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프랑스 여행 전에 들었던 프랑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지저분하고 별로다’ 라는 의견과 ‘낭만적이고 최고다’ 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상반된 견해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어느 말이 진짜일지 궁금해 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첫날 저녁 파리에 도착한 우리는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그냥 잠들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 부푼 가슴을 안고 파리 중심가로 나갔다.

파리 중심가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우리는 반짝반짝 눈이 부신 에펠탑, 엄숙하고 신성한 분위기의 노트르담성당을 둘러보았다. 낮선 땅에 처음 발을 내딛는 것이어서 그런지 그냥 막연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진으로 그렇게 많이 보아왔던 에펠탑이 바로 내 눈 앞에 있다는 게 꿈인지 생인지 실감이 나질 않았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많은 명소들을 그냥 휙 둘러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파리에서의 3일간의 일정 동안 정말 실재 없이 걷고 또 걸었던 것 같다. 배낭여행을 갔다 오면 왜 뱃살이 쏙 빠진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파리 시내만 다 둘러보는 데도 일주일이 넘게 걸릴 정도로 볼거리가 참 많았는데 다른 지역에서의 일정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 것이다. 3일의 일정으로 그 많은 미술관과 루브르박물관, 개선문, 몽마르트 언덕, 노트르담성당 등을 다 둘러본다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었다. 특히 루브르박물관을 만나질 일정으로 잡은 것은 실수였다. 그리고 에펠탑이나 노트르담성당은 저녁에 보는 것과 오전에 보는 것의 느낌이 너무나 달라서 다시 가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몽마르트 언덕도 시간이 더 있었다면 다시 또 가 보고 싶었다.

옛것과 전통을 중시하는 시민들에 의해 고풍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파리의 건물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으며, 세월아 네월아 여유롭게 풀밭에 누워 광합성을 흡수하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노천카페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런 그들만의 여유가 참 부러웠다.

우린 일정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파리에 폭 빠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꼭 가 보고 싶었던 몽생미셸, 풍텐블로, 스트라스부르를 포기할 순 없었다.

모 항공기 광고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진 몽생미셸은 대천사장 미카엘의 계시로 세워진 바다 위의 수도원이다. 마치 어릴 적 만화 속에서 보았던 라푼타처럼 하늘에 떠있는 성이 아니라 바다 위에 떠있는 성인 것이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나 신비스러운 몽생미셸은 나의 가고 싶은 여행지 1순위였다.

파리에서 3시간 30분을 TGV를 타고 렌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고 몽생미셸로 들어가는데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1시간 40분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 목초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보니 내 마음도 편안해졌다.



외부에서 본 몽생미셸

드디어 저 멀리서 몽생미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가슴은 설레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성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스럽고 멋진 성의 모습에 감

탄을 금치 못했다. 조수가 빠져나간 젖빛 바닷가, 끝없이 펼쳐진 갯벌 위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성 하나, 푸른 안개 사이로 보이는 몽생미셸의 모습은 정말 신비함 그 자체였다.

우리가 몽생미셸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썰물 때라 바다 위에 떠있는 성

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낮에는 육지의 모습을 떠다가 저녁이 되면 라푼타의 모습으로 변해 버린다고 한다. 바다 위에 떠있는 몽생미셸의 야경이 정말 장관이라고 하는데 1박을 하지 못해 아쉬웠고 언젠가는 꼭 1박을 하리라 다짐하였다.

성 내부에 들어서면 좁은 길 사이로 상점들이 즐비해 있는데 몽생미셸 고유의 기념품이나 예쁜 공예품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도원을 먼저 둘러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 일단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계단을 따라 먼저 성 미카엘 예배당에 올라서면 바다로 둘러싸인 수도원 주변과 노르망디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푸른 하늘과 검게 그을린 갯벌이 빚어내는 풍경을 넋 놓고 감상하다가 수도원으로 향하였다.

수도원 내부는 밝고 깨끗했던 바깥 풍경과는 달리 다소 어두침침하고 칙칙한 공기로 인해 긴장감마저 갖게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몽생미셸은 나폴레옹 시대에 혁명군의 감옥으로 사용되다 1863년 폐쇄됐다고 한다. 지금 현재는 수도사들이 신앙심을 올곧이 키울 수 있는 수도원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화려한 인테리어나 고풍스러운 가구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검소하고 성스러운 수도원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몽생미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홍합요리인데 가이드북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항상 강력 추천했던 것이 바로 이 홍합요리였다. ‘한국에서 먹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겠지’ 생각했지만 얼마나 맛있기에 그럴까 궁금해 하며 우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 많은 식당 중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호텔 식당으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한국 홍합보다 훨씬 작은 홍합의 크기에 다소 실망했지만 별로 양념을 하지도, 특별하게 조리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맛은 너무나 훌륭하였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강추하는지 알 것 같았다. 지금도 가끔 몽생미셀에서 먹은 홍합 요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

식사를 마친 후 기념품 쇼핑에 돌입한 우리는 버스 시간 때문에 다시 하산할 수밖에 없었다. 몽생미셀은 초저녁이 될 무렵부터 물이 서서히 차 오르기 때문에 버스가 일찍 끊긴다. 더 머물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며 우린 마지막 버스에 몸을 실었다.



폰텐블로성

그다음 일정이었던 폰텐블로에 대한 정보는 가이드북이나 인터넷 어느 곳에서도 부실했다. 처음에는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정보로는 폰텐블로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것조차 역부족이었고 머릿속에 있는 영어를 짜내고 짜내어 조심조심 역무원에게 물어봤지만 불친절한 역무원의 태도로 우린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한 채 그저 막연히 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목적지가 같은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폰텐블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역대 왕들의 별장이자 사냥터이며 나폴레옹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다는

퐁텐블로성은 회색빛의 아담한 성이었다. 말발굽으로 생긴 특이한 계단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은 기마를 상징하며 상류층 귀족들만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화려함으로 가득 채워진 성의 내부는 소박한 외부 모습과는 다소 대조적이었다. 크고 작은 무수한 방, 고급스러워 보이는 카펫, 화려한 그림과 조각들로 인해 귀족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퐁텐블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정원이었는데 어느 곳보다도 여유와 낭만이 가득한 곳이었다. 인공미가 느껴지는 프랑스식 정원 그리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영국식 정원을 구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할



퐁텐블로 운하

수 있겠고, 베르사이유에서 본 운하의 축소판 같은 퐁텐블로의 운하를 산책하는 것도 또 다른 묘미였다. 퐁텐블로가 얼마나 오래된 성인지 느끼게 해 주는 높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퐁텐블로의 정원에서 우린 샌드위치를 먹으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았다.

TGV 타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스트라스부르. 피곤한 몸을 이끌고 TGV에 오른 우리는 멋진 시골풍경에 감탄하다가 졸다가를 반복하다가 스트라스부르역에 도착하였다.



쁘띠프랑스

역에서 조금 걸어가니 독일에서 근접한 지역이자 독일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기도 한 스트라스부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4년 동안 독일군 점령하에 알

자스·로렌 지방의 수도가 되었다고 한다.

스트라스부르는 알자스의 경제·문화 중심지로서 유럽 전체의 교통의 요지이다. 라인강과 론강, 마른강을 잇는 운하를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뷔띠프랑스를 중심으로 흐르는 운하와 무성한 나무들이 너무나 잘 어우러지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예쁜 주황빛깔의 지붕으로 만들어진 나지막한 목조건물들이 스트라스부르의 매력을 한층 더 살려주는 듯했다.

스트라스부르는 아직 관광지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관광객도 별로 없었고 특히 동양인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너무나 이국적인 곳에서 우린 완전히 이방인이 된 느낌이었다.

스트라스부르의 상징 중의 하나인 고딕풍의 노트르담 대성당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주황색 철제로 만들어진 외부의 모습은 정말 특이함 그 자체였다. 철제로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감탄을 자

아닐 정도였다.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스트라스부르 시내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이 언밸런스하면서도 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졌다. 노트르담 대성당 탑에 올라가면 스트라스부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 온통 주황빛으로 물든 마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너무 작은 마을이다 보니 구경거리가 별로 많지 않았지만 뷔띠프랑스 근처 벤치에 앉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감상에 빠지고 싶은 곳이었다. 역시 TGV 시간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TGV에 올라야 했지만 말이다.

프랑스 외곽 일정은 기차 시간과 버스 시간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했다. 7일 내내 시차 적응이 어려웠던 터라 저녁에 잠을 설치고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던 게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민박집을 나설 땐 목적지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렇게 부지런히 걸었기 때문에 많은 추억이 쌓였고 또 후회도 없다.

여행지에 대한 이미지는 날씨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데 변덕스러운 유럽의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일주일 일정을 늦춘 덕분일까? 프랑스에서는 내내 환상의 날씨로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누군가 내게 “프랑스 어땠어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 있게 최고였다고 말해 줄 것이다.



| 한재석(김동성 국회의원 보좌관) |

국회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10개월이 흘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배워간다. 국회의 역할과 국회운영 시스템, 입법의 과정 등등…… 국회의 생활을 직접 겪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아주 다른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 활동을 통한 국정감사는 나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TV에서 보고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을 세심하게 알아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위원장과 간사들의 역할, 상임위의 좌

석배치 방법, 질의순서와 방식, 질의 후 마이크 꺼지는 것과 카메라의 움직임 등등등.....

그러던 중 회의장에 늘 존재하지만 절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느끼지 못하듯이 회의장에서는 그들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공기가 없으면 우리 또한 존재할 수 없듯이 그들이 없으면 회의조차 진행할 수 없다.

내가 그들을 처음 알게 된 건 10월 6일 첫 국정감사장에서였다.

난 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사람에 대해 유별난 호기심이 있다. 특히 누군가 궁금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꼭 알아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친해진다.(물론 내 생각으로만 친한 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회의장을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는 그들을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난 9월 국방위원회에서 처음 생긴 그 호기심을 한 달이나 참아내야만 했다. 옛날 같았으면 허벅지에 피멍 좀 들었을 시간이지 않을까? 하지만 국회 내에서는 나의 호기심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기회를 노렸다.

10월 6일 국방부 첫 국정감사장에서 그들은 나의 목표물이 되었다. 오전 국정감사가 끝나고 점심시간, 식당 안에서 그들이 식탁 앞에 모여 있었다. 드디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난 자연스럽게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다. 대충 그들(3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요즘 개그콘서트에서 나오는 박지선의 말이 떠오

른다. “참 쉽죠잉~^^”

이렇게 1단계를 마무리했다. 이제는 2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근데 이걸 너무 쉽다. 나와 같은 테이블에 있던 3명 외에 옆 테이블의 1명이 나의 대학 후배란다. 그것도 졸업할 때 수업을 같이 들었던단다.(난 졸업학기 때 가정관리학과와 아동학과 수업으로 반을 채웠었다. 내가 선견지명이 있었나 보다. ^^) 더 이상 볼 것도 없었다. 동문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난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때부터 난 쉬는 시간마다 그들만의 휴식처를 찾았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그들이 하는 일을 알아갔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같이 아파했다.(잘 알아듣지 못하게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은 국회 초년병인 나에게도 큰 고통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중함을 알아갔다. 공기처럼 소중하지만 그들이 늘 곁에 있기에 소중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속기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저 이름 그대로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나도 그랬다.

우리는 오천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웠다. 어떻게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배울 수 있었을까? 누군가에 의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가 존재하였을까?

‘속기사’는 단순히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에 알려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들을 '사관'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의 역사를 지켰다. 대한민국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상임위장 점거와 본회의장 점거 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는 회의장소를 점거하거나 회의진행자(의장·부의장)만 잡아 두면 회의를 열지 못한다고 알고 있다. 본회의장이 열리고 국회의장과 모든 국회의원이 들어와도 회의가 열릴 수 없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 사관이 없는 채로 회의는 진행될 수 없다. 그것이 '속기사'의 소중함이다.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주시는 분들께 글로나마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윤종로 벚꽃축제 때 국방위원회 국감팀 속기사들과 함께

제42회 정/기/총/회

42th



대한속기협회는 2009년 1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여의도종합상가 5층 신동양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총회는 안기철 총무이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성원 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고흥길 회장을 대신하여 김기영 부회장께서는 인사말씀에서 KBS에서 제헌절 특집 프로그램을 했을 때 김

수한 의장께서 “속기록은 국보”라고 지칭하신 것을 비롯하여 이번 북경에서 열리는 인터스테노를 축하하며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꿈을 가져보지 않겠나라는 말씀이 계셨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것을 축하하며 속기협회의 발전을 바라는 말씀이 계셨다.

이후 회의는 김창진 의장대리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안기철 총무이사회의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08년도 결산승인의 건 결산보고와 최성주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세 번째 안건인 정관 변경의 건은 협회 사업규모나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사 수를 13인으로 줄이고, 자치단체 업무위임에 따른 감독관청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문 정리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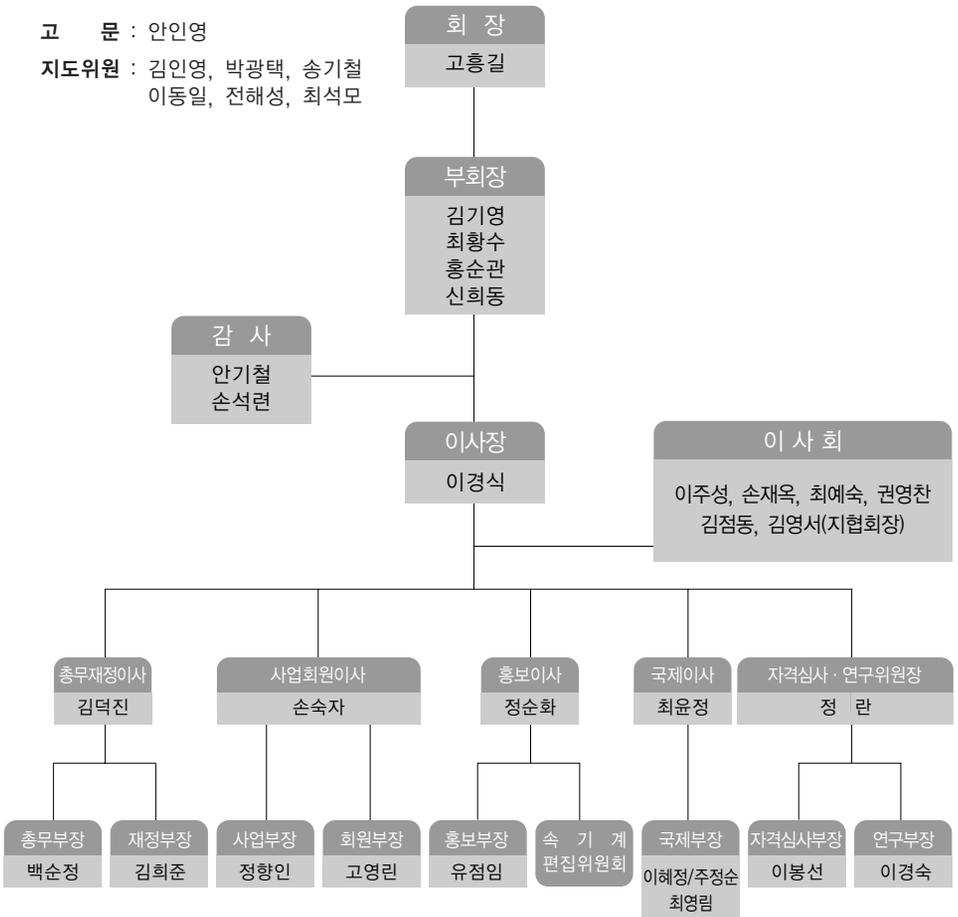
네 번째 안건인 임원 선임의 건은 임기 만료에 의한 새로운 임원 선임으로 이사 겸 회장에 고흥길 현 회장님, 부회장에 김기영·최황수·신희동·홍순관 회원, 이사장에 이경식 회원, 이사에 이주성·손재옥·최예숙·권영찬·김덕진·정란·정순화·김점동·김영서·손숙자·최윤정 회원, 감사에 안기철·손석련 회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상 4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42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협회 임원 및 기구표

고 문 : 안인영

지도위원 : 김인영, 박광택, 송기철
이동일, 전해성, 최석모



2009 INTERSTENO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최종선발전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금) 오전 10시, 2009 INTERSTENO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최종선발을 겸한 09년 속기경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선발을 겸한 대회로 지난 경기대회와

는 다른 기준(국제경기 룰에 따라 1분에 250자부터 320자까지 8분간 낭독한 후 수정시간 없이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총 30명이 참석하여 실력을 겨룬 결과 선발된 인원은 7명이며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나영 김현진 유운정 이은영 장현아 조미래 최기예 (가나다순)
선발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편집후기

www.steno.or.kr

독자로서는 속기계가 별 것 아닌 작은 책자 같았는데 막상 만드는 입장에 서고 보니
그동안 이 책을 만든 선배들의 노고가 새삼 와 닿는다.
처음 편집을 맡은 해가 속기 태동 100주년이라서 더 알찬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고생한 우리 홍보부 부장 이하 기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순화-

말에도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색, 비수와 같은 날카로운 색,
따뜻한 봄날의 색, 훈훈한 색, 사랑스러운 색 등등..
그렇다면 글에도 색이 있겠지요!??
홍보이사님을 비롯한 기자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이번 45호 속기계의 글들은 분명..
사랑스럽고 훈훈한 색입니다.

-점임-

처음 착수한 게 2월인가 3월이었는데 이래저래 늦어지면서 벌써 여름이 됐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상투적인 말은 정말 진리인 경우가 많다.
'세월은 손 화살과 같다'는 표현 역시도 더 이상 정확한 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겨워도 쓰는 게 아닐까..
시간이 많으면 더 좋고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늘어지기만 하고.. 고민만 많아진다.
처음 만들어 본 속기계라 아직은 좀 어색하기는 해도 경험은 차곡차곡 쌓이는 거니까
다음 호는 더 잘 만들 수 있겠지..
다짐한다... 위로도 하고...ㅋㅋ

-정현-

홍보부 편집기자가 되었어요.

전혀 기자라는 느낌을 못 가지고 있다가 담양군까지 가서 의회탐방도 하고
탐방기를 쓰면서 묘한 기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속기계에 이렇게 편집후기란을 장식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홍보부 기자로서 첫 번째 속기계에 부족한 점 많지만 다른 훌륭한 기자분들 역량으로
커버가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속기계에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신지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6월 임시국회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시국선언으로 사회 이곳저곳은 복닥복닥하다. 여기 있는 내게 주어진
의도치 않은 잠깐 동안의 여유. 묵묵히 땀 흘리며 흘러온 속기 100년 강물에게
감동 물들인 노란 씨줄 파란 날줄 엮어 색동옷 한 벌 지어 주지는 데에
그 여유를 사용하였다. 지나온 100년을 경축하고 기리는 일에
이번 호 『속기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과 걱정만이 고스란하다.

- 초롱 -

X선배님(ㅎㅎ)의 권유로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홍보부 첫 속기계.

나라기록관에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리포트도 써보고 재밌었다.

하지만 이렇게 후기까지 쓰게 되니 선배님들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 놓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 자영 -

올해의 목표는 '뻘 끼치지 않기'였는데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엔 그다지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부족했어요.

다음 목표도 미리 공개할게요. '감 잡기'입니다.

감 잡아가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

- 나영 -



⇒ 투고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코자 함이 본 회지의 발간 취지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본 협회 홍보부(국회 의정기록과)

TEL. 02)788-3084, 3184

홈페이지 : www.steno.or.kr

e-mail : foxy76@assembly.go.kr

내 용 :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제언 등

➤ 납입안내

회 비 :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보내실 곳

발전기금 :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회 비 : 농협 301-0010-2714-91 김희준(협회재정부장)



† 속기요금표 †

1998. 2. 8 시행

속기기본료	1시간당	300,000원
녹음 재생	1시간당	350,000원
전문분야	1시간당	350,000원
외국어속기	1시간당	400,000원
요점속기	1시간당	200,000원

-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 총 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 지방 출장 시에는 상기 요금 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 외에 매시간당 50,000원씩 가산한다.
-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협의의 직인이 없는 요금표는 무효임.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변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전화: 02)788-2371~6

速記界

발행: 2009년 8월 20일

발행인: 고흥길

편집인: 정순화

기자: 유점임/ 박정현/ 제신지/ 권초롱/ 기자영/ 김나영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인쇄처: (주)조양애드컴

전화: 02)788-2371~6

F A X: 02)788-3386, 338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홈페이지: <http://www.steno.or.kr>